



고독



모든 것은 우리 손 안에 있다.
가진 것은 즐기고, 하던 일은 계속된다.
새로 계획하고 꿈을 키운다.

시간이 가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
혼돈 속에 깨닫는 것은
내가 가졌던 것과
의지하며 지탱해 준 것은 모두 과거였다

지금, 앞으로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다.
모두 잃고 가진 것 없는 내게 오시는 주님,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루가 8, 25)

CONTENTS

- 02 갤러리/ 김영문(브루노) 신부
고독
- 03 차례
- 04 편지/ 가르멜 관구 재속회 옮김
성요셉, 가르멜의 수호자
- 08 강론/ 강민기(세라피노)신부
하느님 나라의 가치
- 09 수도회 역사/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가르멜 수도회 역사(50)
- 14 영성의 향기/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나는 하느님 빛기를 원합니다(17)
- 18 영성/ 신호준(마리오) 신부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
- 22 어두운 밤 연구/ 서한규(시몬) 옮김
어두운 밤은 우리의 유일한 빛(19)
- 26 영혼의 성 연구/ 서한규(시몬) 옮김
예수의 성녀 데레사, 영혼의 성 해설서(23)
- 29 예수의 성녀 데레사 시와 해설/ 김석영(요셉) 수사
못 죽어 죽겠음을
- 32 선교/ 양상룡(도미니코) 신부
인생사 새옹지마
- 34 묵상/ 윤원조(리드비나)
하느님의 시간
- 36 회원의 글/ 김순상(베로니카)
가진 것이 많으면 베풀 것이 없다
- 39 회원의 글/ 반숙자(벨라뎃다)
천국행 승강기
- 40 공동체 이야기/ 충주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어제로부터의 오늘, 그리고 내일
- 48 가르멜 인간극장, 가난한 신부/ 박지현(요셉파나)
무명배우의 특별 출연
- 46 구역모임 영적독서 자료(224)
2021년 5월 영적나눔
- 48 마음의 샘
- 49 독후감/ 배영숙(성령의 마리아)
성녀 예수의 데레사의 시와 해설을 읽고
- 50 비둘기
- 51 영성센터
- 52 그림단상

표지그림

십자가(윤정순 예수의 글라라) 作

발행인: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통권 제369호 (2021 3. 1) 의장: 공원순 부활의 효임골롬바

주소: 03079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6길 8-8 (가르멜 관구 수도원 내)

홈페이지: 한국 재속 가르멜회 <http://cafe.daum.net/ocdskr> / 가르멜 수도회 <http://carmel.kr>

재속 가르멜회 한국관구 계좌: 우리1006-101-537099 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가르멜수도회 관구재속회 CARMELITE ORDER

* 편지 *

성 요셉, 가르멜의 수호자

성 요셉이 세계교회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된 지 150 주년을 기념하며
원 가르멜 수도회 총장과 맨발 가르멜 수도회 총장이
가르멜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

미셸 오 네일 신부. O.Carm./ 원 가르멜 수도회 총장
사베리오 카니스트라 신부. O.C.D./ 맨발 가르멜 수도회 총장

2020년 올해, 세계적인 전염병이 만연하여 우리는 성 요셉 대축일을 각 가정에서 기념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고 충실한 그분을 더욱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고난과 망명(유배)이 무엇인지, 내일을 걱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지만 용기를 잃지 않았고, 계속해서 하느님을 믿고 희망하였습니다. 하느님은 그분께 아주 특별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즉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돌보시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새로운 가정의 싹이 될 나자렛 가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산타 마르타의 집에서 집전하신 미사의 강론에서 요셉 성인의 중요한 자질 몇 가지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요셉 성인은 명확하고 현실적인 전망을 지니셨고, 당신의 일을 정확하고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잘 알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하느님의 신비를 꿰뚫어 보셨고 깊이 경배하셨습니다.¹⁾

요셉 성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 가르멜 수도회가 전통적으로 '가르멜 삶의 보호자이자 모범'으로 모시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이것은 우리 원 가르멜 수도회와 맨발 가르멜 수도회가 가르멜 가족으로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셉 성인을 공

경하고 그분에 관해 끊임없이 말하면서 우리의 공동 유산과 영성의 가장 귀중한 특성 하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이 기념일의 의미를 더욱 뜻 깊게 하는 일이 있는데, 1870년 12월 8일 교황 비오 9세께서 성 요셉을 세계 교회의 수호자로 선포하신 지 15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가르멜에서 성 요셉의 위상

요셉 성인에 대한 공경은 그리스도교의 형성 및 전통과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요셉 성인을 강생의 신비와 함께 친밀한 삶을 사셨던 한 분으로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옆에 함께 두는 것에 대해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요셉 성인에게 우리가 연상하는 그런 권위와 존경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일천 년까지는 요셉 성인에 대한 신학적인 고찰이나 특별한 경의를 드린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요셉 성인에 대한 신심은 탁발수도회들이 출현하면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신학자였던 장 제르손(Jean Gerson)의 업적에 더하여 프란치스코회와 가르멜 수도회가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가르멜 수도회의 경우 기본적으로 마리아적 영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성 요셉에

1) 프란치스코 교황, 강론, 산타 마르타, 2020. 3. 19

대하여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당연합니다. 마리아의 모든 가족들 -성모님의 부모님이 시며 가르멜의 제 2의 보호자이신 요아킴과 안나, 요셉 성인의 형제 자매라고 전해지는 사람들, 야고보의 마리아와 살로메 마리아(Mary of James and Mary of Salome)- 은 가르멜에서 특별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리아의 배필인 요셉이 간과될 수는 없었습니다. 중세의 신앙 전설(Pious medieval legends)은 가르멜 수도회와 나자렛 성가정과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성모님과 요셉이 가르멜 산에 살던 엘리야 예언자의 후손 예언자들을 방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위(僞)마태오 복음에 근거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성가정이 이집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방문했을 거라고 말합니다.²⁾ 교회안에서 가르멜과 나자렛 성가정과의 결합은 아주 강하게 여겨진 것 같은데, 베네딕토회의 수도원장 조반니 트리테미오(Giovanni Tritemio)와 같은 일부 고대의 작가들은 라틴 교회 안에서 성 요셉에 대한 공경은 아마도 가르멜회 은수자들이 유럽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입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³⁾ 이런 견해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딕토 14세 교황의 저서들에서도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저서에는, 전례 안에서 성 요셉을 공경하는 것은 가르멜 수도회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⁴⁾ 분명

2) 이런 신앙전설은 중요한 미술 작품들에 영감을 주었는데, 오늘날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대성당의 박물관에 걸려있는 15세기 말의 그림들이 그 예이다.

3) LEONE DI SAN GIOACCHINO, *Il culto di San Giuseppe e l'Ordine del Carmelo*, Barcellona, 1905, 48. For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cfr. E. BOAGA, O.Carm., 'Giuseppe, santo e sposo della B.V.M.', in *Dizionario Carmelitano*, ed. E. BOAGA e L. BORRIELLO, Città Nuova, Roma 2008, 443-446.

4) *De Serv. Dei beatif.*, I/iv, 11; I/xx, 17.

한 것은 가르멜 수도회 안에서는 아주 초기부터 성 요셉 신심에 대한 전례적 공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르멜 수도회의 성 요셉에 대한 신심에서 또한 성체성사적 차원도 발견되는데, 이는 성 요셉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구원의 빵을 쥐고 계시는 분으로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르멜 교회에서 성 요셉 축일을 언제부터 기념했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14세기에 지역적으로 강한 신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15세기에 이르면서 성 요셉 신심 미사와 고유 성무일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플랑드르 지역의 가르멜 수도회 아놀드 보스티우스(Arnold Bostius)는 1476년 가르멜 수도회가 성 요셉 성인의 축일을 대축일로 기념했다고 말합니다.⁵⁾ 역사학자들과 전례학자들은 가르멜의 전통 안에서 성 요셉을 기리던 고유 성무일도가 라틴 교회에서 성 요셉에 대한 공경을 표현하는 최초의 기념비가 되었다고 여깁니다.

고대 전례에서는 성 요셉에 대하여 하느님의 아드님을 이 세상 안에 놀랍고도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오실 수 있도록, 동정녀의 신랑으로 선택되어진 나자렛의 첫 번째 인물로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가르멜의 설교가들은 동정녀 마리아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당신 태중에 육화된 말씀을 잉태하신 것처럼, 요셉 역시 같은 성령의 작용으로 관상을 통해 말씀을 잉태하시고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단언했습니다.⁶⁾ 전례에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혼인 결합을 기뻐하고, 요셉을 마리아

5) 참조: B. M. XIBERTA, O.CARM., *Flores josefinas en la liturgia carmelitana antigua*, "Estudios Josefinos" 18, 1963-1964, pp. 301-319.

6) CHRISTOVAL DE AVENDAÑO, *Tomo primero sobre los evangelios de la quaresma, predicados en la corte de Madrid...*, Sebastian y Iayme Matevad, Barcelona 1630, 158-159.

의 동정성과 강생하신 하느님의 아드님의 생명을 보호하신 분으로 기리고 있습니다. 가르멜의 관상적 카리스마의 특유의 민감함과 더불어 가르멜 수도회의 고대 전례는 마리아와 요셉 성인이 강생의 신비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느님께 자신을 개방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두 분의 순결함을 찬미합니다. 이러한 전례 영성의 영향으로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데 파치(St. Mary Magdalen de' Pazzi)는 요셉 성인의 보호하심은 그분의 순결함의 결과라고 보셨습니다. "낙원에서 성 요셉의 순결함은 마리아의 순결함과 합해지고, 이 영광의 교환에서 성 요셉의 순결함은 마리아의 순결함이 더욱 더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드러나도록 해줍니다. 요셉 성인은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별입니다. 또한 그분은 특별히 우리 수도원을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⁷⁾

가르멜 수도회의 고대 전례에서 성 요셉은 마리아의 동정 배필이고, 혼인으로 결합되었으며, 그래서 그분의 권위는 남편이자 보호자이며 아버지로서의 한결같은 역할 안에서 드러납니다. 더욱이 요셉 성인은 하느님께 순명하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요, 주님의 가정에서 훌륭한 가장이셨기에 태어난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큰 책임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분은 주님께 천사가 알려준 예수라는 거룩한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우리가 나자렛의 아기를 통해서 하느님께 구원받았다고 처음으로 선포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고대의 전례에서 우리는 요셉 성인의 모습에서 가르멜 수도회의 영성적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하느님의 비전을 갖게 해주는 *마음의 순결함*(*puritas cordis*), 2) 마리아와의 결합, 3) 순결한 영혼 안에서 육화된 말씀이 잉태되고 탄생한다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지는 신비생활의 결실. 이러한 이유로 요셉 성인은 하느님 안에서 가르멜 수도회 신비생활의 표상이고 반영으로 기려집니다.

성녀 테레사와 성 요셉

가르멜 수도회에서 성 요셉에 대한 공경과 신심의 풍요로운 전통을 계승하신 예수의 성녀 테레사는 이 전통에 폭과 깊이를 더함으로써 가르멜과 보편 교회에 커다란 유익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의 성녀 테레사가 성 요셉 신심을 가르멜의 영성적 정체성의 특성 중 하나로 만드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녀는 당신의 생애 중 가장 어려웠던 한 순간에 요셉 성인을 만났습니다. 성녀의 나이가 25세쯤 되었는데 계속되는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치료는커녕 병을 더 악화시킬 뿐이어서, 성녀는 몸과 마음이 모두 마비되고 녹초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혼자라고 느꼈을 때, 마치 안에서 무언가가 밀어대는 것처럼 여겨졌고, 성녀는 "주인이자 아버지"로서 요셉 성인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자서전 6, 6; 33, 12). 성녀의 남은 생애 동안 요셉 성인은 모든 곤경에서 성녀를 구해주심으로써 후견인이자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요셉 성인에 대한 성녀의 개인적 신심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우정이 중심이 된 데레사적 개혁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지켜주셨고 그분들이 살던 집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은 가르멜 수도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가르멜 수도회는 나자렛의 가족처럼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 가정이 되어줄

7)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데 파치(SANTA MARIA MADDALENA DE PAZZI), 'Vigesimo secondo colloquio', in *I Colloqui: Tutte le opere...dai manoscritti originali* a cura di Claudio Catena, Fulvio Nardoni, Firenze 1961, 237-238.

곳이고, 가르멜인들은 오직 그 목적을 위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셉은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도자입니다(자서전 6, 8). 왜냐하면 그분만큼 예수님과 마리아와 친밀하게 사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이 없고, 오랫동안 함께 사시며 그분들이 나자렛 가족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레사 성녀가 창립하신 15개의 가르멜 수도회들 중 10개에 성 요셉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요셉 성인은 데레사 성녀가 수도회를 창립하실 때 그 자리에 함께하신 적이 아주 많기 때문에 -성녀는 여행할 때 항상 요셉 성인의 성상을 지니고 다니셨습니다-, 데레사적 가르멜의 창립자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⁸⁾ 이 사실로 우리는 개혁 가르멜 수도회의 창립에서 요셉 성인이 참으로 데레사 성녀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아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예언자라는 전통적인 인물 옆에 성 요셉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만, 이 때문에 복되신 동정녀 다음으로 누가 더 중요한 보호자이고 창립자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과 같은 문제들이 생깁니다.⁹⁾ 살라망카에 설립 중인 대학교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결정하려고 고심하면서 데레사가 그라시안 신부에게 쓴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학교를 요셉 성인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편지, 1578. 5. 22), 엘리야 성인의 이름을 따라 부를 것입니다. 이듬해인 1579년 십자가의 성 요한은 바에사에 있는 대학교의 이름을 성 요셉으로 정했고, 이 대학이 성 요셉에게 봉헌된 최초의 남성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칭은 단지 2년 동안만 유지되었습니다. 1581년 3월 이후로 그 대학은 교회의 위대한 교부들 중 한 분이신 성 바실리오 (St. Basil) 대학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여전히 데레사적 개혁 가르멜 수도회에서 나자렛의 목수에게 부여된 역할에 관해서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사반세기 후에, 예수 마리아의 조반니(Giovanni di Gesù Maria) 신부가 *수련자들을 위한 지침서* (Istruzione dei novizi, 1605)에서 요셉 성인에 대한 공경은 오직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 다음이고 "우리 수도회의 창립자들(founders of our Order)"이자 위대한 예언자들인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신심은 그 다음이라고 말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명확해졌습니다.(수련자를 위한 지침 III, 4장, pp 29-30 *Istruzione dei novizi*, III, cap. 4, 29-30)



8) 그라시안은 그의 저서 *요세피나*(Josefina 1597)의 잘 알려진 구절에서 이렇게 개진했습니다. <맨발 가르멜 수도회의 규칙서를 서원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이 이 개혁의 창립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성모님에 대한 신심으로 가르멜 산 예언자들의 수도생활을 창시하셔서 가르멜 수도회가 창립자를 복되신 동정 마리아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녀 데레사는 요셉 성인에 대한 신심을 통해 창립하셨기 때문입니다.> (실베리오 편저, 1, V, cap. 4, p476)

9) 참조. FORTUNATO DE JESÚS SACRAMENTADO, OCD, *San José en el Carmen Descalzo español en su primer siglo*, "Estudios Josefinos" 18, 1963-1964, 367.

(다음 호에 계속)

* 강론 *

하느님 나라의 가치

강민기(예수성심의 세라피노) 신부/ 가르멜 관구 수도원

오늘 복음(2021년 연중 제5주간 화요일)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정결례를 어긴 제자들을 비판하는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을 오히려 나무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찌하여 정결례를 지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조상들의 전통인 정결례를 아예 무시하신 건가요?

손이 깨끗한 것이 나쁘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속이 더럽고 겉만 깨끗한 것이 나쁘다 하시고, 정결례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정결례라는 인간 전통 때문에 더 중요한 것 곧 하느님의 계명을 아주 간단하게 어기거나 소홀히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시며, 그 한 예로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을 핑계로 부모에 대한 효도와 사랑을 소홀히 함을 나무라십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몇 년 전 스페인에 가서 미사를 드리던 생각이 나네요. 그곳 가르멜 수도원에 가서 미사를 드리면서 놀란 게, 봉헌예식 때 사제가 손을 씻는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페인 신부님들은 손을 안 씻는 겁니다. 아예 미사 때 손 씻는 물과 수건을 가져다 놓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사 담당 수사님이 깜짝하고 빼먹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도 손을 씻는 물과 수건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큰 미사 때, 대성당에서는 씻는데요, 평소 미사 때는 아예 손 씻는 물그릇과 수건이 없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미사 때 미리 손을 씻으니까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식이 하나 빠지니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편하긴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전통과 규범이 나쁘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전통의 원래의 목적을 살피지 않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모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재속회 회원이 많아지다 보니, 여러 가지 규칙이 생깁니다. 규칙을 만들고 나면 으레히 그로 인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기도는 언제 해야 하고, 되도록 매일 미사를 나가야하고 등등. 그 규정의 목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채 규정만 바라본다면, 소위,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이 아니라 손가락만 보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규정을 지킬 때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사건이 일어날 때, 나의 기준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환경과 문화가 모두 그것을 공동의 가치로 두고 있다면, 그 기준은 당연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바리사이들이 그들 안에서 어려서부터 그런 규정을 배우고 익혔다면, 주변에서 모두 그 가치를 우선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그 가치를 지키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가치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위에 있는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우리 신앙인의 가치, 또 가르멜인으로서의 가치의 우선순위는 다를 겁니다. 분명 달라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우선시 되는 기준을 통해 상대를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는지요?*

* 수도회 역사 *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 (49)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 인천 가르멜 수도원

13.2.2. 아시아의 가르멜 수녀원

3) 인도 가르멜 수녀원



망갈로르 가르멜

17세기 중반부터 맨발 가르멜 수사들은 인도에 진출했으며, 19세기에는 맨발 가르멜 수녀들이 진출했다. 인도 교회는 이들을 열렬히 환영했으며 성녀 데레사의 카리스마는 이들로 인해 인도 전역에 빠르게 전파되었다. 인도의 초창기 가르멜 수녀원들은 모두 유럽, 특히 프랑스와 벨기에 그리고 스페인의 가르멜 수녀들에 의해 창립되었다. 첫 번째 수녀원은 1870년에 창립된 망갈로르 가르멜(Mangalore)이다. 이 공동체는 프랑스의 포 가르멜(Pau) 수녀들에 의해 창립되었다. 이 창립에는 당시 망갈로르의 사도좌 대리인 마리 에프렌(Marie Efrén, OCD) 주교가 도움을 주었다. 창립자 수녀들 중에는 당시 아직 수련자였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성녀 마리아(보드리)도 있었다. 성녀 마리아는 그로부터 2년 후 다시 프랑스로 돌아갔다. 두 번째로 창립된 수녀원은 풍디세리 가르멜

(Pondicherry)이다. 본래 이 공동체는 1748년 예수회원들의 도움으로 창립된 가르멜 재속회원들의 공동체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공동체는 창립된 후 오랫동안 재속회원들의 공동체로 유지되어 오다가, 가르멜 수녀로 살고자 하는 회원들의 염원에 따라 정식으로 청원해서 마침내 1879년 풍디세리 가르멜 수녀원으로 거듭나게 된다.

1932년 프랑스의 솔레(Cholet) 가르멜 수녀들은 첫 번째 수녀원이 있던 같은 도시인 망갈로르에 진출해서 두 번째 수녀원을 창립했다. 그리고 인도의 세 번째 가르멜은 스페인의 헤타페(Getafe)에 있는 세로데로스안헬레스(Cerro de los Ángeles) 가르멜 수녀들이 진출해서 인도 남부의 케랄라 지방에 창립한 코타얌 가르멜(Kottayam)이다. 이 창립을 제안하고 주도한 사람은 비자야푸람(Vijayapuram) 교구의 교구장인 성 요셉의 보나벤투라 주교이다. 1935년에는 벨기에의 몽슈르마르쉬엔

(Mont-sur-Marchienne) 가르멜 수녀들에 의해 캘커타(Calcutta) 가르멜이 창립되었다. 그 밖에 나머지 많은 가르멜 수녀원들은 인도 가르멜 수녀들에 의해 직접 창립되었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탄자부르 가르멜(Thanjavur, 1886), 쿰바코남 가르멜(Kumbakonam, 1936), 코임바토르 가르멜(Coimbatore, 1943), 썸바가무르 가르멜(Shembagamur, 1944), 고아-치칼림 가르멜(Goa-Chicalim, 1947), 뭄바이 가르멜(Mumbai, 1948), 티루발라 가르멜(Tiruvalla, 1948), 티루치라팔리 가르멜(Tiruchirapaly, 1957), 뭄바이 가르멜(Mumbai, 1965), 마드라스 가르멜(Madras, 1966), 코티얌 가르멜(Kottiyam, 1966), 예르카우드 가르멜

(Yercaud, 1967), 소소-구믈라 가르멜(Soso-Gumla, 1968), 시타가라 가르멜(Sitagarha, 1974), 쿠르놀 가르멜(Kurnool, 1974), 아마다바드 가르멜(Ahmedabad, 1977), 잘파이구리 가르멜(Jalpaiguri, 1977), 에라말로르 가르멜(Eramalloor, 1982), 미수루 가르멜(Mysuru, 1985), 치크마갈루르 가르멜(Chikmagalur, 1988). 20세기 내내 인도 전역에는 27개의 가르멜 수녀원이 창립되었다. 현재 인도에는 32개의 수녀원이 있다. 그 가운데 30개는 「91년 회헌」을 따르며, 2개만이 「90년 회헌」을 따르고 있다.

4) 인도네시아 가르멜 수녀원

인도네시아에 가르멜 수녀원이 처음 창립된 것은 1939년 반둥(Bandung)시 교외의 렘방(Lembang)에서 였다. 이는 네덜란드의 니메가 가르멜(Nimega) 수녀들이 갖고 있던 선교 정신에 힘입은 바 컸다. 그곳 수녀들은 1939년 11월 14일 인도네시아에 가르멜의 카리스마를 전하기 위해 고국을 떠나 그해 말인 12월 31일 인도네시아에 도착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이 렘방에 폭탄을 투하해서 큰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렘방 가르멜 수녀들은 1946년 3월 6일 이곳을 떠나야 했다. 종전 후, 인도네시아는 독립을 선언했으며 그간 자신들을 식민 지배하던 네덜란드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전쟁의 위험에 처해 있던 렘방 가르멜 수녀들은 결국 네덜란드로 귀환하게 된다. 그러나 전쟁이 멈추자 이들은 다시 인도네시아 교회의 선교를 꿈꾸며 인도네시아로 진출했다. 1949년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 가르멜(Maastricht) 수녀들은 인도네시아에 카카스카센 가르멜(Kakaskasen, 1949)을 창립했다. 1953년에는 바자와 가르멜(Bajawa, 1953)이 창립되었으며, 당시 인도네시아 엔데 교구의 교구장 주교가 이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963년에는 방치되어 있던 렘방에 일단의 수녀들이

파견되어 렘방 가르멜을 복원했다. 이 3개의 가르멜은 모두 「91년 회헌」을 따른다. 가르멜 수녀들은 수사들이 인도네시아 교회에 진출하기를 간절히 염원했으며 결국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1982년 가르멜 수사들이 진출하기에 이른다.

5) 이스라엘 가르멜 수녀원

이스라엘에 가르멜 수녀원이 진출한 것은 19세기 중반의 일이다. 처음 이 창립을 주도한 것은 프랑스의 리지외 가르멜(Lisieux)과 카르펑트라 가르멜(Carpentras)의 수녀들이었다. 이들은 1873년 예루살렘에 첫 번째 가르멜 수녀원을 창립했다.



예루살렘 가르멜

(외부 정원에 각국어로 주님의 기도가 전시되어 있다)

이 수녀원에는 ‘파테르노스테르’(Pater noster: 주님의 기도)라는 별칭이 붙었는데, 이는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친 곳이 바로 이 언덕에 있는 동굴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지역은 예루살렘이 내려다보이는 곳으로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이다. 그래서 1914년 1차 대전 당시 수녀들은 이 지역을 점령한 군대에 의해 추방되어 이집트로 피신해야 했다. 이들은 카이로의 마타리(Matariech)에 정착해서 1919년까지 살았다. 그리고 상황이 호전되자 그해 5월 31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수녀원을 복원했다.

이스라엘에 두 번째로 창립된 수녀원은 베들레헴 가르멜이다. 이 창립 역시 프랑스 수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창립을 주도한 공동체는 포(Pau) 가르멜이다. 포 가르멜 수녀들은 1875년 베들레헴 가르멜(Bethlehem)을 창립했다. 이 창립에는 기적이 있었다. 이 창립에 대해 처음 언급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성녀 마리아 수녀로, 그는 현시를 통해 하느님으로부터 이 창립에 대한 영감을 받았다. 성녀는 장상 수녀들에게 베들레헴에 수녀원을 창립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전하며, 창립지로 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 바깥에 있는 곳을 구체적으로 꼽았다. 그곳은 다윗이 양떼를 치던 언덕이었다. 마침내 창립은 시작되어 베르트 다르티고(Berthe Dartigaux) 부인의 후원으로 3년이 채 되지 않아 수녀원은 완성되었다. 창립 멤버들은 1875년 8월 20일 포(Pau)에서 출발해 9월 24일 베들레헴에 도착했으며 곧 이어 창립 미사가 봉헌되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성녀 마리아

이 수녀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성녀 마리아가 현시를 통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에 따라 탑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수녀들은 이곳에서 1914년 11월 19일까지 평온하게 살았다. 그러나 그곳을 점령한 오스만투르크 통치자의 명에 따라 수녀들은 보금자리를 떠나 프랑스 마르세유의 메 가르멜(Mai)로 피신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1919년 그곳 수녀들은 수녀원을 복원하기 위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 이 수녀원으로부터 1910년 나자렛 가르멜(Nazareth)이 분가되어 나왔다. 이 수녀원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성녀 마리아의 현시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의해 창립이 이루어졌다.

가르멜 산 언덕에 자리한 하이파 가르멜은 1892년 에쿨리-리스 가르멜(Ecully-Liesse) 수녀들에 의해 창립되었다. 사실, 이 창립의 시작은 아비뇽 가르멜(Aviñón)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아비뇽 수녀들이 품었던 이 창립 계획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루지 못했다. 그 후 이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도와준 이들이 있었다. 요셉과 아우구스티노 레만이라는 개종 유



나자렛 가르멜



하이파 가르멜

다인 형제가 그들이었다. 또한, 창립에 필요한 다양한 수단은 빌르뇌브(Villeneuve)의 어느 부인에 의해 조달되었다. 이 창립이 성공하려면 그곳에 가서 살게 될 창립 멤버들이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 프랑스 전역에서 이 창립을 위해 자원한 수녀들이 모여 준비할 공동체 창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해서 창립을 위해 자원한 수녀들은 1878년 5월 3일 아비뇽을 출발해서 에쿨리를 향해 떠났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에쿨리 가르멜이 창립되었으며 이곳에는 하이파 가르멜 창립을 위한 성소자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888년, 2명의 에쿨리 가르멜 수녀들은 창립을 모색하기 위해 가르멜 산으로 떠나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고 성심의 마리 요셉 신부와

아마데오 피엘라 백작의 지도 아래 그해 9월 8일 수녀원의 머릿돌을 놓게 된다. 마침내 1891년 11월 20일 프랑스의 에쿨리에서 8명의 창립 수녀들이 이스라엘의 하이파를 향해 떠났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 15일 하이파에 도착해서 12월 31일 수녀원을 접수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1892년 1월 2일 이 수도 공동체는 첫 미사를 봉헌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창립됐다. 제1차 세계 대전이던 1914년 11월 24일 수녀들은 오스만투르크 정부에 의해 이곳에서 추방되어 1919년까지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해야 했다. 수녀들은 추방의 위험을 무릅쓰고 1919년 다시 하이파로 돌아가 스텔라 마리스(Stella Maris) 남자 가르멜에서 1km 근처에 있는 새로운 장소에 수녀원을 세웠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는 4개의 수녀원이 창립되었으며 현재까지 많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목숨을 걸고 성지를 지키며 봉헌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에 있는 4개의 수녀원은 모두 「91년 회헌」을 따른다.

(다음 호에 계속)

* 신간 안내

성 토마스 개념 사전

저 자: 바티스타 몬던
 역 자: 이재룡, 윤주현, 안소근 공역
 출판사: 한국 성 토마스 연구소
 분 량: 900페이지
 (구입문의: 033-344-1238)



내 용: 이천년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 학자를 꼽는다면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들 수 있다. 성 토마스는 초대 교회부

터 12세기까지 내려오던, 플라톤 철학과 신플라톤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신학적 전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균형 잡히고 완성된 신학의 기초를 놓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류를 향한 구원 역사를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그분이 짧은 생애 동안 집필한 책은 수 백권이 이르며 이는 가톨릭 교회의 가장 소중한 유산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그 후 무수한 신학자들과 성인성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아직 한국 교회에는 성 토마스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신학대전』도 번역이 되지 못한 상태이다.

최근 3년 전부터 ‘한국 성 토마스 연구소’를 중심으로 성 토마스의 사상을 한국 교회에 소개하기 위해 많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 하나로 성 토마스의 사상과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 개념들을 정리해서 소개한 『성 토마스 개념 사전』이 이번에 번역, 출간되었다. 저자는 이태리 신학계를 대표하는 석학, 바티스타 몬던

아마데오 피엘라 백작의 지도 아래 그해 9월 8일 수녀원의 머릿돌을 놓게 된다. 마침내 1891년 11월 20일 프랑스의 에쿨리에서 8명의 창립 수녀들이 이스라엘의 하이파를 향해 떠났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 15일 하이파에 도착해서 12월 31일 수녀원을 접수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1892년 1월 2일 이 수도 공동체는 첫 미사를 봉헌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창립됐다. 제1차 세계 대전이던 1914년 11월 24일 수녀들은 오스만투르크 정부에 의해 이곳에서 추방되어 1919년까지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해야 했다. 수녀들은 추방의 위험을 무릅쓰고 1919년 다시 하이파로 돌아가 스텔라 마리스(Stella Maris) 남자 가르멜에서 1km 근처에 있는 새로운 장소에 수녀원을 세웠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는 4개의 수녀원이 창립되었으며 현재까지 많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목숨을 걸고 성지를 지키며 봉헌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에 있는 4개의 수녀원은 모두 「91년 회헌」을 따른다.

(다음 호에 계속)

* 신간 안내

성 토마스 개념 사전

저 자: 바티스타 몬던
역 자: 이재룡, 윤주현, 안소근 공역
출판사: 한국 성 토마스 연구소
분 량: 900페이지
(구입문의: 033-344-1238)



내 용: 이천년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 학자를 꼽는다면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들 수 있다. 성 토마스는 초대 교회부

터 12세기까지 내려오던, 플라톤 철학과 신플라톤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신학적 전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균형 잡히고 완성된 신학의 기초를 놓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류를 향한 구원 역사를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그분이 짧은 생애 동안 집필한 책은 수 백권이 이르며 이는 가톨릭 교회의 가장 소중한 유산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그 후 무수한 신학자들과 성인성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아직 한국 교회에는 성 토마스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신학대전』도 번역이 되지 못한 상태이다.

최근 3년 전부터 ‘한국 성 토마스 연구소’를 중심으로 성 토마스의 사상을 한국 교회에 소개하기 위해 많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 하나로 성 토마스의 사상과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 개념들을 정리해서 소개한 『성 토마스 개념 사전』이 이번에 번역, 출간되었다. 저자는 이태리 신학계를 대표하는 석학, 바티스타 몬던

신부이며, 역자는 74권에 이르는 『신학대전』 한국어판 번역을 주도하고 있는 이재룡 신부, 윤주현 신부, 안소근 수녀이다. 본서는 성 토마스의 철학과 신학, 영성과 성경 주해 등 그분의 사상 전체를 관통하는 약 550개의 용어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한 작품으로, 성 토마스의 방대한 사상에 접근하게 해주는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이 작품과 더불어, 한국 가톨릭 신학계는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인 성 토마스의 사상에 다가설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작품을 통해 성 토마스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이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한국 가톨릭 신학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신학대전』 해설서 제3권

저 자: 월터 패럴

역 자: 윤주현, 조규홍 공역

출판사: 수원가톨릭대학교 출판부

분 량: 750페이지

(구입문의: 031-290-8814)

내 용: 본서는 지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성 토마스 신학 총서 시리즈」의 제3권이다. 이 시리즈는 수원가톨릭대학교 교수회의의 승인 아래, 윤주현 신부가 기획하고 윤주현 신부, 조규홍 교수, 안소근 수녀가 저자, 역자로 참여해서 성 토마스의 신학을 한국 교회에 소개하는 중

요한 신학 총서이다. 성 토마스는 한국 교회 안팎의 여러 철학자에 의해 소개되었지만, 주로 철학 분야, 그것도 난해한 형이상학, 인식론을 통해서만 소개되었다. 이에, 이 총서는 철학을 제외한 성 토마스의 신학, 영성, 성경 주해서들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그 첫 번째 작품으로 2019년부터 성 토마스의 대표작이자 역사상 최고의 신학 작품으로 평가받는 『신학대전』을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해설한 『신학대전 해설서』를 번역, 소개하기 시작했다. 전체 4권으로 구성된 이 작품의 1~2권은 출간되었으며, 이번에 제3권을 출간하게 되었다.

저자는 20세기 성 토마스의 신학을 대중화시키는 데 성공한 미국의 도미니코회 수도 사제인 월터 패럴 신부이며, 공역자는 윤주현 신부와 조규홍 교수이다. 제목이 말해주듯이, 이 작품은 성 토마스의 대표작인 『신학대전』이 간직한 핵심적인 논증과 통찰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로 풀어쓴 책으로서 가장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학대전』을 조금이라도 읽거나 그 내용이 지닌 심오함, 그러나 동시에 난해함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저자가 얼마나 다채롭고 풍부한 현실감각 그리고 많은 예화를 바탕으로 토마스 신학의 정수(精髓)를 쉽게 해설하려고 노력했는지 알 수 있다. 교회 역사상 최고의 보화인 『신학대전』을 쉽게 읽고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작품을 읽도록 적극 추천한다. *



* 영성의 향기 *

나는 하느님 뱀기를 원합니다 (17)

마리 에우젠 신부 지음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옮김

B. 침묵의 형태

II. 본성적 활동에 대한 금욕 (계속)

4. 교회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활동은 인간적인 균형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 활동은 '움직임 가운데 있는 삶' (vita in motu)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은 움직임 가운데 있으며 움직임과 더불어 자신을 드러낸다. 삶에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우리의 힘에 비례해서 조절된 활동에는 기쁨, 건강, 균형이 자리한다. 우리의 감각적 능력들이나 여러 기관에 자리하는 본성적인 에너지를 파괴하려 드는 것은, 최고선(最高善)인 완전한 관상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에너지를 부동(不動)과 무위(無爲)로 환원하는 가운데, 생리학적인 무질서와 인간적인 균형이 균열하는 데 자신을 노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축적되는 에너지는 즉시 의지를 초월하며, 생명이 쇠약해지는 기다림 속에서 육체와 영혼을 기고만장한 본능의 힘(난폭하고 억압적으로 변한)의 활동에 복종시킨다.

5. 더욱이, 관상가는 공동체 안에 산다. 이는 그에게 공동생활의 의무를 짊어져야 한다는 규범을 부가한다. 그러나 비록 형제들에 대한 공동체적인 사랑의 과제들로부터 해방된다 해도, 관상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적인 일들에 수반되는 산만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성녀 데레사는 어떤 것에서 하느님을 섬기려는 갈망으로 인해 타오르고 밀어 붙여지는 내적인 불에 의해 불이 붙어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어떤 사랑

의 행위들은 성녀에게 위로와도 같았다.¹⁾ 다른 환경에서는 좀 더 강한 하느님의 개입 이후, 또는 좀 더 깊은 거둠 이후, 비록 당황하고 동요한 [영혼의] 기관들이 갈망을 느낀다 해도, 영혼은 모든 내적 활동에 대해 무능하다. 이런 활동을 그에게 강요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와 반대로, 조절된 활동으로 보장된 부주의는 [영혼의 기관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힘과 균형을 회복하고 나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혼 안에 거하시는 신적인 손님의 새로운 밀어붙임을 유지하게 한다.

이는 거의 예외적이라고 할 만하다. 이는 사실일 수 있지만,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다. 왜냐하면, 이는 사람들에게 타격을 주며, 관상 생활에서 이들의 실패는 이 생활에서 진보하기 위해 하느님의 강렬한 활동을 통해 주어지고 촉진된 것보다 훨씬 더 유감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는 성녀 데레사가 『창립사』에서 언급한 사람들을 지적하기 위한 경우가 아닐까 싶다. 비록 이들은 관상을 위해 많은 것을 선사 받았지만, 하느님의 가장 작은 행위 아래 쇠진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심리적, 영성적인 불균형으로 인해 자신을 기쁨과 맛으로 채워주는 연장된 기도가 오히려 더할 나위 없이 위험한 신경과민적인 소모 상태로 데려갈 정도에 이른다.²⁾ 그들에게 어울리는 삶은 마리아

1) 참조. 자 30, 19-22.

2) “저는 덕행을 지닌 몇몇 영혼들이 그런 상태에 빠진 채 7~8시간을 보내고는 그것을 법열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간의 신심 행위에도 심한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저항하지 않고 자신을

의 삶이 아니라 마르타의 삶이다.

그러나 이는 자주 있는 일이며 상당히 낡은 것으로 사람들 사이에 아주 공통된 상황이기도 하다. 고통스러운 정화, 규정될 수 없는 쇠약한 상태의 한가운데서 하느님의 활동이 죄, 정신병리학적 성향들과 신비스럽고 심오하게 충돌한다. 이 상태에서 관상가의 영혼은 자신에게 몰두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분석하며 서서히 그에 대한 원인과 구제책을 찾는다. 이런 방식으로 고통은 증가하고 쓸데없이 연장된다. 반면, 만일 그가 특히 애덕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에게서 나오면, 자유로운 영역을 하느님의 활동에 맡기며 정화적인 가치를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그 증거를 잊어버리고 하느님을 섬기고 효과적으로 고통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보존하게 된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영혼 안에 지나치게 많은 어두움이 있을 때 애덕에 전념하도록 권했다. 카르투시오 수도자는 자신의 은둔소에 작업장과 작은 정원을 갖고 있다. 테베 지방의 독거 은수자들은 손노동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다. 가르멜 규칙은 노동만큼이나 침묵에 대해 강조했다. 성 상송(San Samson)의 요한은 자신의 작품 『가르멜의 진정한 정신』(Véritable Esprit du Carmel)에서 장상들로 하여금 늘 자신의 수방에 머물기를 고집하는 수도자를 강제로 나오도록 열렬히 권고한 바 있다. 투랭(Touraine)의 가르멜 개혁에 있어서 빛과 같았던 이 유명한 체코 수사는 침묵의 고요함과 위로에 대해 지나치게 과

말기는 것으로 압니다. 이럴 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이런 꼴을 계속한다면 점차 죽어 가든지 아니면 자신의 능력이 방해를 받든지 합니다”(창 6, 2).

주체의 타락이 아닌 심리적인 나약함에서 기인하는, 위조된 보다 높은 신비적 은총들에 대해 성녀 데레사는 상당히 염려했다. 그래서 이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구제책을 제시하기 위해 『창립사』 6장 전체를 할애했다. 이 6장은 심리학적, 정신병리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해안과 섬세함으로 인해 상당히 중요한 장으로 손꼽힌다.

욕을 부리는 관상가의 영적 탐식을 주요 목표로 조준하려 했던 것 같다.

관상적인 영혼이 외적인 활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종종 고통스러운 일이다. 사실, 이는 관상이 기쁨과 만족, 체험한 은총들이나 단순히 섬세하지만 깊은 평화에 대해 제공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이는 정화됐거나 정화 중에 있는 [영혼의] 기관들에 자연적 실재들이나 사람들(관상가는 이들의 결합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과 힘겹게 접촉하고 힘겹게 전념하는 부담을 지운다. 이 과정에서 하느님의 빛 속에 잠긴 영혼에게 있어 고통스러운 모든 것과 함께, 자신의 불순함과 더불어 영혼을 침범하려 위협하는 모든 것과 함께 모든 인간적인 것이 드러난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마태 17, 17). 아니면, 아르스의 본당 신부의 고뇌와 힘겨운 자신의 직무에서 벗어나 트라피스트 수도원의 고독 속으로 은거하고 싶은 반복된 유혹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위해 당신 제자들과 함께 머물기를 바라셨으며 아르스의 거룩한 본당 사제는 위대한 성인이 되고 경이로운 선교사가 되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아야 했다.

6. 활동과 기도. 하지만 관상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침묵과 의무적인 활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수도자는 자기 수도회의 규칙과 장상들의 뜻에서 모든 유용한 엄밀함과 함께 준수해야 할 기준을 발견하게 된다.

수도생활 밖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개인 성소, 삶을 구성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전제 아래 이제부터 고독에 대해 약간 언급한 다음, 몇 가지 실천적인 지침에 대해 다뤄보기로 하자.

a) 순명에 의해 규정된 시간을 기도를 위해 세심하게 봉헌하고 그 시간을 활동의 침범으로부터 열렬히 보존해야 한다. 이 약속된 시간을 습관적으로 빼앗는 현세적인 재화나 사람들을 위한 기민함은 과도하고 무질서하다. 이는 애덕이나 열정의 구실로 “이스라엘에 대해 깨어 계시며” 우리가 우리의 일에 충실한지 살펴보시며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책임을 세심하게 이루시는 하느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함을 은폐할 수 있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마태 6,33).

b) 신분에 따른 활동, 특히 의무가 완전히 수행되도록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해야 한다. 하느님의 현존을 보존하거나 오직 하느님만을 위해 자기 힘의 일부를 간직하기 위해 염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로부터 이 의무가 요구하는 육체적 에너지나 지적 에너지의 일부를 더는데 충분한 동기가 되지 않는다.

하느님의 뜻인 노동은, 기도 자체가 지성과 믿음을 통해 하느님을 이해하게 해주는 것만큼이나, 의지와 애덕을 통해 하느님과 더불어 효과적으로 소통하게 해준다. 이러한 두 가지 친교는 성성(聖性)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보완하고 조화를 이룬다.

그러므로, 우리 성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그 결과 우리 신분의 의무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이러저러한 활동 자체의 가치에 관한 토론, 관상이나 활동 가운데 어느 것이 우위에 있는가 하는 토론은 무익하다. 성소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상대적인 질서 안에 우리를 자리매김한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인해 성소는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몫이 된다. 성소가 우리에게 부과하는 활동들은 우리를 가장 성화하는 수단이다. 신분에 따른 의무들은 우리에게 있어 성성(聖性)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아, 안타깝게도 이 사안에 대한 거짓된 빛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타락과 많은 시간과 힘의 낭비가 일어났는지 모른다. 맛과 매력에 이끌려 속아 넘어가 과도한 애덕 활동에 전념하거나, 그 반대로 과도하게 기도만 함으로써, 하느님의 섭리적인 계획의 실현에 있어 우리의 몫을 구성하는, 신분에 따른 의무를 완수하는 데 필수적인 힘을 소비하기도 한다. 이와 비슷한 실수들을 강화하기 위해 상당히 쉽게 제시되는 초자연적인 동기들은 그 안에 숨겨진 은밀한 이기주의를 정당화해주지 못한다. 그리고 해당 사람을 비롯해 그가 봉사해야 할 사람들에게 일으킨 피해도 고쳐주지 못한다.

c) 활동은, 그 활동에서 하느님의 뜻과의 친교를 끌어내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반면, 광신적인 태도가 수반된다면, 활동은 해로울 수밖에 없다. [영혼의] 기관들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이 해로운 정념(情念)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때로는 행동 전에 그리고 종종 행동 중에 의지의 지배나 이성의 통제 그리고 초자연적인 동기의 영향이 사라진다. 또한, 이로 인해 인간을 그가 도달해야 할 목적과 일정한 시간에 해야 할 일에 사로잡히게 해서 맹목적이고 불안한 상태에 놓아둔다. 그럼으로써 활동에서 모든 규칙을 없애고 모든 기준을 제거하는 것은 아닐까? 초조함은 영성 생활에 해를 끼친다. 왜냐하면, 이는 [영혼의] 기관들의 활동과 이들을 인도하고 형성시켜야 하는 초자연적 덕들 사이의 접촉을 막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질서는 뒤집히고, 일은 [영혼의] 능력들의 활동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만일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하고 가치들의 질서를 전복시킨 초조함을 강하게 단절하지 못한다면, 질서를 다시 설정할 수 없으며 영혼의 상위 기관들에 의존해서 제대로 된 활동을 회복할 수도 없다. 따라서, 흔히 심한 충격이 필요하다. 즉, 효과적인

기분 전환이나 갑작스러운 활동 중단을 바탕으로 한 심한 충격이 필요하다. 사람은 한순간에 자신을 거둬들이며 자신의 능력들에 침묵과 휴식을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혼의] 능력들을 자기 손에 다시 거머쥘 수 있다. 그리고 하느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제 거의 완수하게 된 고정된 과제를 향해 다시 출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고요와 질서 가운데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런 심한 충격들은 폭력과 함께 일어난다. 또한, 이는 종종 반복되기도 하며, 에너지를 격분시키는 가운데 그 에너지를 무너트리고 쇠진시키기도 한다. 이는 인간에게 사려 깊은 분별과 더불어 쇠신된 상태에서 본성적으로 넘치는 활동의 물결들을 통해 단련하게 해주며 그에게 자신에 대한 일정한 지배력을 보장한다. 특히, 그는 하느님 앞에 있으며, 자신이 선한 지향을 품고 있다는 데 대한 증거로 하느님의 쇠도를 끌어들이고, 그럼으로써 영혼의 가장 적극적인 배반 능력들에 대한 하느님의 총체적인 승리를 준비한다.

d) 영성 생활의 발전에는 두 가지 시기가 있다. 여기서 활동이 관상과 일치하기 위한 문제는 흔히 아주 고민스러운 사안이며, 인간은 이로 인해 아주 쉽게 착각에 빠지고 이는 그에게 많은 해를 끼친다.

여명(黎明)에 대한 섬세하고 부드러운 모든 매력을 지닌 관상의 첫 영적 체험들은 초자연적인 인상들을 간직한 강한 욕망을 일으키며, 그런 체험들이 일어난 쉽고 침묵에 대한 강렬한 필요를 갖게 한다. 일정한 불쾌감을 수반하는, 종종 외적인 활동이나 지적 활동에 대한 무능함을 향한 이런 필요는 절대적인 요청들과 함께 [영혼에] 부과된다. 영혼은 총체적인 고독에 대해 열망하며 강하게 자극받은 모든 활동에서 벗어나려 한다. 하지만, 인간은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런 고립과 비활동적 상황을 견디지 못한다. 이런 갈망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직 절

대적인 쉼의 압박을 견딜 수 없는 [영혼의] 기관들을 이미 현저한 무질서와 불균형에 노출시키는 것과 같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총들에 의해 조성된 매력들은 흔히 부르심으로, 이는 어떤 경향성을 가리키며 맹목적이다. 오직 현명하고 전문적인 영적 지도자만이 각자에게, 그의 기질과 받은 은총에 따라, 수동적 침묵과 외적 활동 그리고 지적 노동에 대한 사려 깊은 기준을 통해 그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을 가르쳐 줄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만일 이 순간 인간이 신앙생활에 첫걸음을 떼게 된다면, 절대적인 침묵에 대한 그의 갈망이 어떨든, 그것은 활동에 대한 사려 깊은 전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가 쇠약해지지 않으면서도 자신에게 부과된 규칙적이고 엄격한 구조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많은 수고와 풍부한 초자연적인 체험으로 단련된 인간이 습성이 된 관상에 고착되는 것 같을 때, 거의 이와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 점에서 그의 관상이 고통스럽든 감미롭든, 그것은 침묵에 대한 커다란 필요를 만들어낸다. 이제 영혼은 사막에서의 힘겨운 수덕(修德)을 대면할 수 있다고 느끼며 이를 열망한다. 누가 이를 그에게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느님께서 섭리적인 사건들이나 장상들을 통해 그렇게 하신다.

(다음 호에 계속)

영성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

마리 보댕-크르와 /메어리 프랜시스 무니 번역 (영어)

신호준(하느님 사랑의 마리오) 신부 역 / 인천 가르멜 수도원

원래 이 책은 저자인 마리 보댕-크르와 (Marie Baudouin-Croix)에 의해 *Léonie Martin: Une vie difficile* 라는 제목으로 1989년에 프랑스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번역 대본으로 삼은 책은 이 불어판의 1993년 영어 번역본인 *Léonie Martin: A Difficult Life (tr. by Mary Frances Mooney, Dublin)*를 2017년 미국(Ignatius Press)에서 출판한 같은 제목의 책입니다.

들어가는 말

(1989년 판)

“그보다는 마르탱 부모님에 대해 말해주세요”

데레사 성녀의 언니들 중 가장 적은 재능을 타고났던 레오니 마르탱에 관한 책을 쓴다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겠다. 마르탱 가족과 동시대에 살았던 많은 이들은, 게다가 우리 자신들도, 5명의 자매들 중 셋째인 레오니에게 “미운오리새끼”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데레사 성녀의 <자서전>과 성녀와 가족 간에 주고받았던 <서간>을 읽었던 이들은, “그보다는 마르탱 부모님에 대해 말해주세요”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그리스도교 신자 부부의 모범이 되는 삶은 세상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었다. 그리고 그러한 마르탱 부부의 삶이 혼인의 모범으로서 인정받는 것을 보고 싶어 한 이들이 있다. 부부가 서로 간에 혹은 자녀들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가정들은 그렇게 참 그리스도인 부모의 모범이라는 도움을 반길 것이다. 백년 이상이나 되는 세월의 간격은 문제될 것이 없다. 왜냐

하면 남편들과 아내들,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은, 마르탱 부부가 살았던 시대에 있었던 것과 같은 어려움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에서는, 마르탱 부모님의 시복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1) 1957년 10월 10일, 쟈²⁾의 파스케 주교는 (성녀 데레사의 어머니인) 켈리의 글들을 조사하라는 명령에 서명했다. 같은 해 3월 22일에는, 바이외³⁾ (교구)의 자크민 주교가 데레사의 아버지 루이 마르탱에 대한 시복을 위해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의 딸인 셀린, 1959년 2월 25일까지 리지외 가르멜 수녀원에 살고 있었던 성면의 즈느비에브 수녀는, 모범이 되었던 부모님의 생애를 증언하는 기쁨을 누렸던 것이다.

“그보다는 성녀의 가르멜 수녀원 출신 언니들에 대해 말해주세요”

데레사 성녀의 여러 작품에 친숙한 이들은 “그보다는 성녀의 가르멜 수녀원 출신

-
- 1) 마르탱 부부는 2015년 10월 18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 2)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지방의 소도시로서 리지외에서 남쪽에, 일랑송 바로 위쪽에 위치함
 - 3)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지방의 도시로서 리지외에서 서쪽에 위치.

언니들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 언니들이 데레사 성녀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성녀가 고작 4살 반밖에 안 되었으니까요.”

이 말은 확실히 마르탱 자매들 중 많이였던, 마리에게는 맞아 떨어진다. 마리는 데레사 성녀의 대모였다. 그랬기에 그녀는 성녀에게 첫영성체를 준비시켰으며, 르 뷔 소네에서는 성녀를 가르쳤다. <한 영혼 이야기>도 마리 덕분이다. 왜냐하면 마리가 성심의 마리 수녀가 된 이후, 데레사에게 여러 가지 추억을 적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인데, 그렇게 추억들을 기록한 것이 자서전 첫 번째 원고가 되었던 것이다. 자서전 두 번째 원고 역시 마리 덕분이다. 사실 마리가 대녀에게 부탁했던 것은 장문의 편지였는데, 대녀는 자기 만언니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공유하신 비밀들”을 드러내기 위해 그 편지를 적었던 것이다.

폴린, 곧 데레사가 끔찍이 사랑했던 “작은 엄마”, 역시 그녀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곧 폴린이 예수의 아녜스 수녀라는 수도명으로 리지외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했던 때부터, 데레사 성녀는 자기 언니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했다. 성녀가 사랑했던 폴린은, 환자였던 작은 여동생이 임종 전까지 했던 말들을 전부 <마지막 대화들>이라는 보물창고에 모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폴린은 1951년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작은 여동생의 영광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셀린 역시 마찬가지로였다. 그녀는 마르탱 자매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가르멜 수녀원에 합류했다. 다시 말해서, 셀린은, 1894년 마르탱 씨가 임종하고 난 이후에, 즈느비에브 수녀가 되었다. 그녀는 1959년에 세상을 떠나 가르멜 수녀원 성당 안에

안치되어 있는 데레사 성녀의 유골함 바로 아래에 마리와 폴린과 함께 매장되었다. 셀린의 영혼은 데레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셀린을 영성 지도했던 피송 신부는 셀린이 “네 명의 사람에게도 충분할 만큼의 개성”을 지녔다고 말했다. 그녀는 “천둥의 아이”, “겹 없는 이”라고 불렸다. 그녀는 의지가 강했으며, 생명력이 넘쳐흘렀다. 그녀는 또한 예술가였다. 자신의 능숙한 화필을 통해 그녀는 우리에게 데레사 성녀와 성면의 여러 초상화를 남겨주었는데, 그러한 초상화들은 세상 도처에서 수없이 많이 복제되었던 것이다.

어째서 레오니인가?

그렇다면 이 책은 어째서 레오니에 관해 이야기하는가? 레오니는 몸에 있어서도 지능에 있어서도 다른 자매들보다 덜 타고났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자기 주위의 모든 이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정서가 불안한 아이였다. 그녀는 모든 감각으로 자기가 얼마나 “지독했었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더욱 더 사람들은 레오니에 대해 듣고 싶어 한다. 물론, 마르탱 가족들과 게렝 가족들, 곧 레오니의 외삼촌과 외숙모가 부르곤 했던, “가엾은 레오니”의 명성은, 절대로 “현대의 가장 위대한 성녀”였던 데레사의 명성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선한 의지, 자신을 보잘 것 없다고 선언하게 했던 깊이 있는 겸손, 하느님 자비에 대한 신뢰를 통해, 레오니는 자기 자신을 유순하게 하느님 손안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분명 작은 길의 영성을 따르도록 선택되었다.

이 책으로 레오니의 숨겨진 여러 덕행에 빛을 비추려고 하지는 않겠다. 폴린이 “거룩한 교회는 하느님의 모든 친구들을 성인품에 올릴 의무는 없습니다.”라고 말

했듯이 말이다.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어렵고 다루기 힘든 성향을 극복하려고 투쟁했던 한 여인에 대해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모두에게 위안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레오니라고 불리었던 어린 반항아의 이야기가, 자기 자녀들과 종종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상처 입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레오니는 1941년에 세상을 떠났다. 심지어 자기 여동생이 시성되는 영광 이후에도, 그녀는 줄곧 너그러웠으며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다. 레오니의 사후 도움을 청하는, 세계 도처에서 보내 온 편지들이 카엔의 방문회 수녀원에 도착했다. 아이로서 자기 부모를 아주 많이 고통스럽게 했던 레오니는, 이제는 그녀가 천국에서부터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온다고 확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다.

레오니의 유의미함

이 책은 레오니 마르탱에 대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담아낸 전기는 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의견보다 더 권위가 있는 여러 의견이 이미 그러한 과업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나는 단순히 레오니를, 곧 온순함의 성인이셨던 프란치스코 드 살의 참된 추종자가 되기 위해 서서히 온순함과 겸손함으로 이끌렸던, 까다로우면서 고집이 섰던 반항아를 묘사하고자 한다. 프랑소와 페레즈 수녀(수도명)가 되고자 했던, 레오니는 날마다 겸손하게 그러나 충실하게 방문회 규칙을 지키며 살았다. 카엔의 (방문회) 수녀원에서, (수녀들은) 여전히 레오니를 기쁘게 떠올린다. 현재 대수도원 성당 길에 (위치한 수녀원에서) 살고 있는 40명의 방문회 수녀들 중 네 명이 레오니와 함께 지냈으며, 그녀가 성녀처럼 거룩하게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목격했었다.

레오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 그녀의 무덤에 청원하러 찾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하묘지를 대중에게 공개하려고 그녀의 시신이 놓여있던 아름다운 18세기 건물의 벽들을 개조하는 공사를 해야만 할 정도였다. 가족들이 함께, 개인별로, 때로는 멀리서부터 그녀의 무덤에 기도하러 와서는, ‘사랑하는 친구에게’와 같이 신뢰하는 표현으로 수신인을 적으면서, 글로 적은 청원들을 무덤에 놓아두었다. 레오니의 무덤은 모래 색깔의 대리석으로 되어 있으며, 지하층 작은 제대 앞에 자리하고 있는데, 무덤 위에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글이 새겨져 있다.

프랑소와 페레즈 수녀
레오니 마르탱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언니가
41년의 수도생활을 마치고
1941년 6월 17일
78세로 하느님 품으로 돌아감

레오니는 데레사 성녀의 충실한 제자였다. 성녀의 작은 길이 처음에는 아주 까다로운 이였던 한 인물에 의해 50년 이상 평가 받았던 셈이다. 성녀의 진심어린 믿음, 레오니가 수도생활 하려고 했던 희망에 마주했던 성녀의 희망은 열매를 맺었다. 사실상 짧은 생애 동안 데레사 성녀는 자기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지 못했다. 레오니의 경우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듯 여겨졌다는 것은, 데레사 성녀가 레오니 덕분에 자신의 작은 길이 반항하는 성향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적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것처럼 작은 방문회 수녀(레오니)는 데레사 성녀가 “희망하는 만큼 많이 받습니다”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완전한 자아 포기를 구현해 냈던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마찬가지로, 아마도 레

오니의 “아주 지독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마르탱 가족은 자기 자녀들이 모두 재능을 타고 났으며, 유순하고, 쾌활하고, 가족들에게 자랑거리라는, 부모의 자기만족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겠다. 게렝 부부는, 곧 레오니의 외삼촌과 외숙모는, 자기 딸들과 관련해서 그런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 아마도 그들 부부는 자기들의 양육방식이 더 낫고, 더 조화로우며, 더 인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레오니는 하느님 자비에 온전히 의탁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결핍된 사람으로 바라보겠다고 결심하면서 변모되었는데, 그런 일이 있기 오래 전에 가족들이 겸손해지는 데 있어서 촉매 역할을 했던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보물찾기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나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요한4,10;14)

완덕은 성덕을 얼마나 성취했는가 또는 성공적으로 수덕행위를 실행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사랑을 얼마나 내면화하고 그분께 응답하면서 만나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나서시는 사랑의 주님임을 믿고 깨달을 때 가능해집니다. 하느님의 자비로운 눈길과 기다리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고 비로소 그 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성을 찾아 영적 여정을 떠나는 사람은 조건 없는 사랑에 빠진 영혼이며 끝없이 하느님을 목말라하는 영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은 고정된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당신과의 내밀한 친교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부르시는 사랑은 응답하는 사랑으로 꽃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 내면의 중심은 조건지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참된 사랑의 영성을 발견하는 기쁨의 여정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하느님을 찾는다면 사랑하는 님께서는 그녀를 훨씬 더 많이 찾으시며”
(『사랑의 산 불꽃』 제3노래, 28)

김광서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 어두운 밤 연구 *

어두운 밤은 우리의 유일한 빛(19)

레오나드 두한 지음

서한규(하느님 신비의 시몬) 옮김/ 서울 성 알베르토 공동체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에 열중하기

우리는 믿음에 의해 변화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믿음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로 삶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한 것, 즉 아주 분명한 것이 아닌 세상이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된다. 우리가 경험한 믿음으로 삶에는 두 가지 지평이 있으며, 그러한 지평들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초월적 실체를 갈망하고, 영원한 진리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러한 신비적 수준에서 살게 되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일상생활과 이러한 것에 의미를 주는 저 나라의 삶 사이의 연관성을 인식함으로써 변화된다. “나 이미 내 안에 살지 않고 하느님 없이 살지 못하니. 님 없이, 나 없이 있는 것, 이렇게 사는 것 무엇인가?”(하느님을 뵙기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영혼의 시, 1) 즉, 삶은 이 세상을 넘어선 삶의 지평에 의해 판단을 받고 새로운 의미가 주어진다.

어두운 밤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삶을 찾기를 갈망하는데, 요한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초월적인 사람과 동일시해야만 한다고 가르친다. 요한은 이곳 이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것에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인 동시에 다른 지평에서의 삶을 즐기며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것은 성찰의 정신과 침묵에 대한 갈증을 요구한다. 우리는 변화적 침묵에서 나올 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다른 렌즈를 통하여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 우리 각자의

깊은 곳에는 하느님과의 합일에 대한 갈망이 있다. 요한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장을 위한 잠재력을 발견하는 이러한 과정이란 종교적 신심을 서서히 쌓아 올리지 않고 단순함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더 많은 종교적 수련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선함과 사랑을 건드림으로써 삶의 풍요로움을 추구한다. 하느님의 사랑의 선물을 인식하고(『로망스』) 우리 마음속에서 끝없이 지속되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신앙 경험이 삶의 방향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우리는 삶의 실현을 위한 우리의 갈망과 또 다른 왕국의 삶으로의 부르심 사이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생을 두고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선 삶의 지평을 살짝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영성의 기초적인 경험들 중의 하나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따금씩 엿보게 되는 생명의 나라 때문에 의미를 지닐 뿐이다. 어두운 밤에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지 속에서 가지는 않는다. 우리는 신적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느님과의 어떤 우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밤』 2,11,7).

요한은 어두운 밤을 통하여 가는 이러한 여정에 대하여 “아! 복된 행운이여!”라고 뜨겁게 환영했다. 어두운 밤에 가는 여정은 “감각의 속박과 압박에서 나오는”(『밤』 1,11,3) 것이고, 즐거운 해방이다. 영의 수동적인 밤은 즐거움과 평화를 가져다준다. “하느님께서 이 밤에…감각적으로나 영적으로 영혼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기

능들과 감정들과 애착들과 욕들을 잠재우셨다는 것이니, 그것이 영혼에게는 복된 행운이다”(『밤』 2,14,2). 그 결과, 영혼은 비움 속에서 자신을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소유물에서 자유로워지며 평화를 찾는다. 하느님께로 가는 여정 중에 영혼은 하느님 사랑을 위한 고독에 의해 움직여진다(『밤』 1,11,2). 감각의 수동적인 밤을 견디며 “그 영혼은 추리의 수고도 없이 자신의 영 안에서 가장 고요하고 사랑스러운 관상과 영적인 풍미를 쉽게 발견한다”(『밤』 1,1,1). 영의 수동적인 밤에도 잠시 쉬며 기뻐하는 시간이 있다. “그러한 때에 영혼은 저러한 지하 감옥과 감금 상태에서 나와서 넓고 자유로운 휴식에 들어가며, 평화의 부드러움과 하느님과의 사랑어린 우정을 느끼고 즐기게 되며 영적 친교를 힘들이지 않고 풍요롭게 느끼고 즐기게 된다”(『밤』 2,7,4). 여전히 그 영혼은 부족한 것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갈망한다. 하느님께 이르는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하느님과의 이렇게 높고도 행복한 합일”(『밤』 서문)을 발견한다. 그리하여 열정을 가지고 밤을 거쳐서 가는 이 여정의 마지막에는 기쁨과 평화와 더한 갈망들이 남는다.

요한이 열중했던 영의 수동적인 밤의 커다란 열매들 중의 하나는 신적 사랑에 대한 격렬한 감정이다. 영혼은 사랑에 대한 소망과 초조함을 가지고 하느님을 갈망한다. 이렇게 열정적인 사랑은 하느님의 선물로서, 사랑의 합일을 위한 기초적 능력이다(『밤』 2,11). 그것은 간절한 바람이며, 술에 취한 것과 같은 것이며, 힘이며, 격렬함이며, 대담한 에너지이다.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 대한 더 깊은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다(『밤』 2,13,7-8). 게다가 이런 영의 어두운 밤에 영혼은 안전함을 발견하고 하느님이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밤』 2,16을 보라). 그는 이러한 하느님의 부르심이 하느님 사랑 속에서 그를 휘어잡는 비밀스러운 지

혜, 즉 신비 신학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느님과 비교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저열한지를 알게 된다(『밤』 2,17). 이러한 경험은 영혼들로 하여금 훨씬 더 강한 사랑을 향해 열정적으로 오르는 사랑의 사다리이다(『밤』 2,18-20).

『편지』, 『금언』과 주요한 작품의 헌사(獻詞)를 읽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요한의 주위에는 열정으로 가득한 신앙 공동체가 있었다. 그 밤들의 예상되는 고통 앞에서조차 두려운 생각은 없었다. 오히려 평화롭고 확신에 찬 열정이 있다. “저의 하느님, 당신과 함께라면, 제가 어디를 간다고 하여도 당신을 위하여 어디라도 가렵니다”(『금언』 52). 물론 요한은 이미 그 여정을 마쳤고 하느님께서 그에게 해 주신 변화를 인식하며 뒤를 되돌아보고 있다. 하느님의 선물로 인하여 “영혼과 하느님의 아드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약혼인 복된 합일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그 영혼이 정화되고 고요해지고 굳세어지고 안정된다.”(『밤』 2,24,3)는 사실을 요한은 알고 있다. 이러한 영적 혼인에서 “이러한 하느님의 지혜는 즉시 사랑을 차지하는 새로운 매듭으로 영혼과 하나가 된다”(『밤』 2,24,3).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는 삶의 지평이다. 우리 모두는 시편 저자와 함께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이토록 그리워합니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제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합니다. 그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나 가서 뵈올 수 있겠습니까?”(시편 42,2-3)라고 말할 수 있다. 요한은 우리가 이러한 여정을 “사랑의 간절함으로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수행해야만 한다고 항상 주장한다. 요한의 전체 체계는 영성생활의 주된 동인(動因)인 하느님께 집중된다. 하느님께서서는 그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영혼들을 신적 생명으로 이끄신다. 하느님의 사랑은 모든 인간의 응답을 앞서 간다. 그것은 부르고 정화하고 빛을 비추어 주고

고통 중에 지지해주고 나누어주고 변화시켜주며 일치시키는 사랑이다. “아, 저의 주 하느님, 당신께서 먼저 당신을 보여 주시고 제가 그토록 바라던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셨으니, 순수하고 꾸밈없는 사랑으로 당신을 구하는 사람이 어찌 자신의 소망과 뜻대로 당신을 찾지 못하겠습니까?”(『금언』 2). 이 여정은 황홀하고 흥분되는 것이고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그 안으로 뛰어 들 수 있다.

제7장 현대 생활에서의 어두운 밤

오늘날 어두운 밤은 어떤 것인가?

어두운 밤은 헌신적인 영혼이 하느님께 가는 여정, 그가 하느님을 더 정확하게 알기를 바라고, 그 결과 하느님을 더욱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여정 중에 일어나는 일이다. 요한은 사랑으로 하느님께 가는 우리의 여정을 돕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여정에서 만나게 될 모든 부침浮沈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졌다. 어두운 밤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느님과의 합일로 움직여가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우리가 어려운 길을 나설 때, 특히 산을 오를 때, 이미 그 길을 다녀와서 우리가 마주치게 될 어려운 곳을 잘 아는 훌륭한 길잡이를 두는 것은 너무나 안심되는 일이다. 그 길잡이가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어려운 곳을 열거하면서 그 여정을 설명하지 않고, 그 목적지에 다다른 것이 어떤 것과 같은지 동료 여행객들에게 열변을 토하며 설명할 것이다. 요한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그런데 훌륭한 길잡이는 고객으로 하여금, 난

관을 만날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너무 어려운 여행길로는 결코 안내하지 않을 것이다. 즐겁지만 너무 험난하지 않은 쉬운 길로 동료들을 데리고 가기를 원하는 길잡이들이 항상 있다. 나는 여러 번 미국 국립공원들에 갔었는데, 그것은 확실히 즐거운 경험이었고 의심의 여지없이 다시 그 경험을 하고 싶다. 대부분의 오솔길들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고 부담이 큰 것도 아니었다. 나는 알프스에도 올라갔었는데, 마지막에는 지쳐 버렸고, 완전히 쓰러졌고, 피곤함으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지만, 그 등산은 내 인생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신나는 경험 중의 하나였다. 여러분이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하여 사투를 벌이며 위나 아래를 쳐다 볼 때, 그 산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세상에 대한 다른 시각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등산은 어렵고 부담이 크고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요한은 이미 가르멜산을 올랐고, 그 길을 잘 알고 있으며, 한 번 이상 -개인적으로나 영적 지도 모두에서-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장애물들을 보았고, 어떻게 하면 그러한 것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 요한은 우리가 그 길에서 마주치게 될 두 가지 주된 문제점들이 있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그러한 것들이 단순히 장애물로만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지름길이고, 더 커다란 힘과 열정을 가지고 그 길을 가도록 우리의 기운을 북돋운다. 그는 이 두 가지 커다란 변화의 시기를 감각과 영의 “밤”으로 묘사한다. 처음에는 언제나 보아 왔던 길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둡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심오한 조명의 경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은 하느님께서 선택된 이들을 인도하시는 길에서 본보기가 되는 신중한 길잡이다. “나는 눈먼 이들을 그들이 모르는 길에서 이끌고 그들이 모르는 행로에서 걷게 하며 그들 앞의 어둠을 빛으로,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리라. 이것들이 내가 할 일 나는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리라”(이사 42,16). 하느님께 가는 이러한 밤의 여정에서 우리는 사물들을, 그리고 하느님과 자신과 삶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보는지 알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시인이 하느님의 입을 빌려 “밤은 나의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⁴⁾이라고 말한 것을 되풀이해서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요한은 하느님께로 가는 이 여정이 우리 감각에 대한 밤 경험과 우리 영에 대한 밤 경험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국면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 밤들 각각은 우리가 일을 하는 능동적인 면과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변화의 작업을 하시는 수동적인 면 모두를 가진다. 감각의 밤은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끌 수 있지만 또한 장애물도 될 수 있는 감각의 대상들이나 경험들에 대하여 언급한다. 예를 들자면 종교적 신심들, 건물들, 장소들, 순례지들, 책들, 수련들, 종교인들, 선호하는 기도들, 성인들에 대한 신심들, 영적 지도자들, 인기 스타들 등이 있을 것이다. 종교의 이 모든 감각적 대상들의 문제는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고 도움이 되겠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께로 가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 그 대상들에 집착하게 해서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는 진정한 목표를 놓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영의 밤은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끌 수 있지만, 또한 이러한 만남에 장애물도 될 수 있는 지성과 기억과 의지라는 영적 기능들의 일반적 대상들에 대하여 언급한다. 예를 들자면 희망, 경험들, 피정들, 사도직 헌신들, 동기부여, 소명에 대한 이해, 과제에 대한 열정, 영적 쇄신에서의 기쁨 등이 있을 것이다. 감각과 영의 이 모든 대상들은 우리의 여정에 훌륭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절대화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게 되고 의존하라는 유혹을 받는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이 만든 하느님과 관련이 있는 이미지들을 제시한다. 그 영적 여정은 무엇보다 하느님, 다른 이들, 우리 자신들, 삶에서의 우리 역할들, 삶에서의 우리 비전과 사명과 목적에 대한 이미지, 하느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이미지를 정화하는 것이다. 그 밤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보고, 언제나 이 모든 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살펴보라는 권고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과 관련이 있는 옛 방법을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날 수 있다.

어두운 밤은 위기이지만 모든 위기들이 어두운 밤은 아니다. 정화는 죄와 나쁜 경향들에 대한 것이지만, 죄에 대한 많은 정화는 그 여정보다 먼저 일어난다. 요한은 이 여정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확고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헌신한다고 말한다. 이 밤의 정화는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끈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한 무질서한 애착들인 욕들의 정화이다. 이런 무질서한 욕망들의 많은 것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종종 합리화하고 지지하는 사회악, 제도화된 악들이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우리의 여정을 방해하고 나중에는 다시 방향을 돌려서 하느님께로 가도록 하는 이 두 가지 어두운 밤들에 우리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안전함을 잃음에 따라 혼란스러워 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삶과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됨에 따라 그 밤은 빛을 비추어 주게 된다. 물론 그 빛으로 들어가는 기쁨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을 때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 무엇보다 이 여정을 해 나갈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시편 저자처럼 우리는 “어둠이 나를 뒤덮고 내 주위의 빛이 밤이 되었으면!” 하여도 암흑인 듯 광명인 듯 어둠도 당신께는 어둡지 않고 밤도 낮처럼 빛납니다.”(시편 139,11-12)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4) Charles Peguy, *God Speaks*(New York. Pantheon, 1945).

* 영혼의 성 연구 *

예수의 성녀 테레사, 영혼의 성 해설서(23)

키에란 카바나프, O.C.D./ 캐롤 리시, O.C.D.S. 지음
서한규(하느님 신비의 시몬)옮김/ 서울 성 알베르토 공동체

제 6 공방

제10장

영혼이 머무는 동안 깊은 비밀들이 드러난다

1. (1항) 이 장에서 테레사는 다른 유형의 은혜에 대하여 말한다. 어떤 이들은 위안이나 힘을 받고 다른 이들은 영혼에 기쁨을 받는다고 테레사는 말한다. 그녀는 아주 자세하게 쓰지는 않겠다고 말하지만, 정보를 주어서 이러한 시현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혼란스러워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반면에 그녀는 충분한 설명을 해줘서 사람들이 그들이 상상하는 모든 것이 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테레사가 말하는 이러한 경험들 중 어떤 것들은 제9장에서 논의했던 상상적 시현들보다 설명하기가 더 어렵다.

2. (2항) 테레사는 이 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 이러한 은혜들을 유령이나 허깨비로 말했지만,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것을 지적 시현들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제8장에서 지적 시현들에 대하여 쓸 때, 함께 모시고 계신 분으로서 주님을 경험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서 그녀는 그 시현들을 사물들이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보이고 당신께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당신 안에 지니고 계시

는지가 드러나는 것으로 설명한다.

3. (3-4항) 여기에서 테레사는 은유를 바꾸어 하느님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대한 왕궁으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이제 하느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는 언제나 당신 안에 살고 있으며, 당신 안에서 죄를 범하기까지 한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바로 당신 안에 있는 당신의 피조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신다. 언제 우리는 이 위대하신 하느님을 닮을 것인가? 고통을 당했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꺼이 그것을 견디고 우리를 모욕하는 이들을 사랑하십시오.

4. (5-7항) 테레사는 또 다른 은혜에 대하여 설명한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진리 자체로 보여주실 수 있는데, 그 진리가 기준이 되어 인간적 진리가 부족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테레사는 이런 설명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가능한 한 많은 방법으로 이러한 진리 안에서 걸어가도록 촉구한다. 그녀는 그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례들을 든다. 테레사는 겸손과 자아인식이 진리 안에서 걷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5. (8항)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당신과 약혼을 한 이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당신의

장엄하심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당신의 뜻을 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고 데레사는 말한다. 이러한 은혜 안에서 악마도 사람의 상상력도 끼어 들지 못하니 영혼은 심오한 만족을 즐기게 된다 .

설 명

1. 가장 커다란 비밀을 담고 있는 그녀의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인 마지막 궁방에 다가섬에 따라, 데레사는 일종의 기다리는 방인 제10장과 제11장의 마지막 두 장에 살고 있다. 그녀는 우선 두 영역을 통과해서 가야만 하는데, 하나는 빛의 영역이고 다른 것은 불의 영역이다. 첫 번째는 진리의 빛이다. 그녀는 이것에 대하여 제10장에서 다룬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충동적이고 크기 때문에 실제로 그녀를 죽음의 위험에 두는 억제할 수 없는 소망의 영역이 따른다. 이들은 이를테면 제7궁방의 서막 격인 제6궁방의 마지막 장에서 다루어진다.

그렇게 진리와 소망은 데레사가 마지막 궁방의 신비로운 영역으로 날아가는 두 날개이다.

2. 진리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었오?” (요한 18, 38)라고 질문했지만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돌렸던 복음의 일화를 상기해보라. 데레사는 그 질문에 매우 관심이 많았지만, 우리가 지고의 ‘진리’에 대하여 이승에서는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녀 자신의 개인적 삶의 이야기에서 그녀는 「자서전」의 마지막 장에 언급했던 단계까지 왔다. 그녀는 어떻게 그녀의 영혼이 불붙기 시작했으며, 하느님의 장엄하심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그 장엄하심으로 가득차게

된 영적 황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러한 경험으로 그녀는 모든 진리들을 완성하는 ‘진리’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진리’ 그 자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 “...세상에서 생기는 모든 해악은 성경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다. 성경 한 구절만으로도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자서전」 40, 1). 마지막 궁방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거짓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 한다. 우리 모두의 깊은 곳에는 거짓이 숨어 있다. 데레사는 “하느님의 봉사에도 이끌지 않는 모든 것은 너무도 허영과 속임수로 차 있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깨닫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다” (「자서전」 40, 2)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했다.

3. 하느님께서 겸손의 덕을 좋아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데레사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는데, 그녀는 그것이 묵상의 결과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느님께서서는 지고의 ‘진리’ 이시고, 겸손한 것은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좋은 것이 없고 오직 비참과 공허만 있다는 것이 너무나 깊은 진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거짓 속에서 걸어갑니다. 이것을 더욱 잘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지고의 ‘진리’를 더욱 기쁘게 해 드립니다. 그는 진리 안에서 걸어가기 때문입니다(「성」 6, 10, 7).

4. 하느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두 드러났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께서는 ‘세상의 빛’ 이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진리’ 이시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

덤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성화시켜 주고, 자유롭게 해 주는 진리를 알고자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듣는다. 예수님을 따름은, 성부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파견하시고, '모든 진리 안에서' 이끄시는 '진리의 영'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진리에 대한 절대적 사랑으로 가르치신다.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하여라" (「가톨릭교회 교리서」 2466).

5. 이렇게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로 설명한 것은 몇 년 전에 데레사가 「자서전」에서 언급했던 가장 높은 경험이다. 이제 그녀는 그러한 경험을 상기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궁방에 다가서는 단계로 제시한다. "주님께서 진리를 알도록 이끄시는 영혼은 행복하도다!" (「자서전」 21, 1) 이제 「영혼의 성」의 이 시점에서 데레사는 이러한 진리의 경험의 자유롭게 해 주는 효능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한다. "이러한 은혜는 가장 유익합니다. 한 순간에 지나간다고 해도, 그것은 영혼 안에 깊이 새겨져 남아 있고 가장 커다란 혼란을 불러옵니다. 하느님을 거스르는 악이 더욱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느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커다란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 6, 10, 2).

6. 우리는 여기에서 그녀가 어떻게 비유를 바꾸었고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왕궁과 같다고 말한 것에 약간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는 이 왕궁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근세기에 신학은 주로 유신론의 모델

로 일했다. 이러한 해석은 존재의 질서 중에서 가장 높으신 분으로 추론한다. 그것은 기도를 할 때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에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느님이 세상과 다르며 세상으로부터 멀리 계신다고 주장한다. 그 반대의 모델은 (모든 것이 신神이라는) 범신론이다. 범신론은 창조된 것과 창조되지 않은 것 사이의 차이를 없애고 그리하여 하느님과 세상을 뒤섞어버린다. 이러한 현존의 가장 알기 쉬운 해석의 모델은 데레사에게 드러난 만유내재신론萬有內在神論이다. 다른 두 유형과 달리 만유내재신론은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 머무른다는 관계를 그린다. 우리가 에페소서에서 보듯이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시는" (에페 4-6) 하느님께서서는 다시 모든 것을 망라하신다.

논의를 위한 질문

1. 하느님께서서는 언제 이러한 유형들을 전해 주시는 것 같은가?
2. 하느님께서 영혼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깊은 비밀의 예는 어떤 것인가?
3. 죄인들의 악한 행동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4. 이것이 우리에게 하느님에 대하여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5. 하느님께서 보여 주시는, 피조물 안에 있는 저 모든 어둠 속에 남겨진 것 같은 진리는 무엇인가?

(다음 호에 계속)

* 성인의 시 *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시와 해설

못 죽어 죽겠음을

Muero porque no muero

김석영(예수 마리아의 요셉) 수사/ 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1. 사노라 나 안에 아니 살며
높이곰 살기가 원이로라
어저 못 죽어 죽겠음을

2. 사랑으로 죽은 뒤론
이미 나 밖에 사노매라
당신 위해 날 사랑하신
님 안에 사는 탓이어라
님께 내 마음 바쳤을 때
그 속에 이 글을 적었노라
“어저, 못 죽어 죽겠음을”

3. 내가 사는 하늘스런
사랑의 이 옥살이로
님은 내 포로 되어주고
내 맘은 풀려 놓였노라
님이 내 포로 되시는 꼴
보고지고 보고지고
어저 못 죽어 죽겠음을

4. 아으 지루타 이승살이
머흐도 머흘사 귀양살이
항쇄 죽쇄 이 감옥에
내 영혼이 묶여 사노매라
벗어날 일 기다림만도
빠저리는 아픔일라
어저 못 죽어 죽겠음을

5. 님 못 누리느 그 살이가
아으 얼마나 쓰거운고
사랑이 외 좋다한들
지리한 기다림은 아닌 것을
강철 도곤 무지근한
이 짐을 넘하 벗기소서
어저 못 죽어 죽겠음을

6. 언젠가는 죽으리란
믿음 하나로 사노매라
죽으면서 사는 길이
내 소원을 다짐하나니
죽음아 너로 해 삶이 오거니
더디지 말라 바자니노라
어저 못 죽어 죽겠음을

7. 굳셀손 사랑이로다
목숨아 내게 번거이 말라
너를 얻으려 널 버리는 것
이것만이 네 차지란다
오려무나 달가운 죽음아
거뜰한 죽음아 오려무나
어저 못 죽어 죽겠음을

8. 거짓 없는 참스런 살이
저승살이가 그 아닌가
이승살이 죽기 전엔
살아서는 못 누리나니
죽음아 나를 외면치 말라
먼저 죽어서 살자구나
어저 못 죽어 죽겠음을

9. 나 안에 사시는 내 님에게
목숨아 무엇을 내 드리겠나
살뜰히 그 님을 모시려니
너를 버려야 하겠구나
님 두고 내 사랑 또 없느니
차라리 죽어서 뵈고지고
어저 못 죽어 죽겠음을

해설

이번에 소개하는 시에는 현대인들이 좀처럼 쓰지 않는 순수한 우리 옛말이 참 많은 것 같다.

우선 제목부터 함축적으로 줄여서 쓴 말이라 금방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못 죽어 죽겠다'는 말을 풀어서 말하면 '죽고 싶어서 죽겠다'는 말을 시적(詩的)으로 표현한 말이다.

1연에서 <높이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곰>은 어떤 말에 여운을 주거나 의미를 강조할 때 붙는 토씨(부사)로서 옛날 삼국시대 백제 사람들이 부르던 가요 <정읍사>에도 '들하 노피곰 도드샤 어귀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달아 높이높이 돌아서 멀리멀리 비취다오)라고 나온다.

2연에 <사노매라>는 <산다> 또는 <살아간다> <살고 있다>는 뜻의 옛날의 시적 표현이다.

<어저>는 감탄사로서 <아!> <아으!>로 표현 되는 벽찬 감정이나 한탄의 심정을 나타낸다.

3연에서 <하늘스런>은 <신적(神的)인> 또는 <천국 같은> 의미의 시적인 표현이고, <보고지고 보고지고>는 <보고 싶어 보고 싶어>라는 말로서 보고 싶은 감정을

강조한 옛스런 표현이다.

4연에서 <아으 지루타>라는 말은 <아, 지루하기도 하구나>라는 말의 시적 표현이고, <머흐도 머흘사>는 <힘하고 힘하다>라는 말로 견뎌내기가 지독하게 힘들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다.

<항쇄족쇄>는 옛날의 감옥에서 죄인의 목에는 칼을 씌우고 발에는 족쇄나 차꼬를 채워서 신체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속박하던 형벌을 말한다.

5연에서 <살이가>는 <삶이, 또는 산다는 것이>라는 뜻이고, <쓰거운고>는 <쏟아진 것인가, 또는 쓰디쓴 것인가>라는 말이며, <괴>는 <그이, 그것이>의 준말인데 여기서 <그것이 그렇게>의 뜻으로 쓰였고, <지리한>은 <지루한>의 방언이고, <강철도 곤 무지근한>은 <강철보다 무거운>의 옛스런 시적 표현이고, <님하>는 <님아, 님이 시여!>하고 부르는 호격이다.

6연에서 <바자니노라>의 <바자니다>는 <바장이다>라는 말의 고어(古語)로서 좀더 쉬운 말로 풀이하면 <부질없이 짧은 거리를 오락가락하다, 제자리서 동동거리다>라는 뜻이다.

7연에서 <굳셀손>은 <굳세다, 또는 굳센 것은>의 뜻이고, <번거이>는 <번거롭게>로 읽으면 되고, <오려무나>는 <오려므나>의

방언으로 <오렴, 오라, 와!>로 읽으면 되고, <달가운>은 <단, 달콤한, 감미로운>의 옛스런 시적 표현이다.

8절에서 <참스런 살이>는 <참된 삶>으로 읽으면 되고, <살자쿠나>는 <살자구나>의 변형이다.

9절에서 <뵈고지고>는 <뵈고싶어>의 옛스런 시적 표현이다.

위의 시를 현대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시(詩)답같은 글로 이렇게 풀어 헤쳐 보았다.

1. 살아야 하니까 살고는 있지만/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드높은 이상으로 살고 싶네./ 아, 죽지 못해 죽을 지경이네. 2. 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 자아를 포기한 뒤로/내 자신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 살게 되었지요./그건 당신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덕분이고/내가 당신 안에서 당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지요./당신께 내 마음 바쳐드렸을 때/내 마음 안에다 이런 글을 새겨 놓았지요/ '아, 죽고 싶어 죽겠습니다.' 3. 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이 감옥살이로/님이 나의 포로가 되어 주셔서/내 마음은 자유를 얻었지요./하느님이 나의 포로 되어 주시는 걸 두고 두고 보고 싶어요./아, 죽고 싶어 죽겠나이다. 4. 아, 지루하기도 하다 이 세상에 사는 것/힘하고도 힘하다 귀양살이 이 신세가 너무나 힘들구나./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인 이 감옥에서/내 영혼도 묶여서 살고 있구나./자유에 대한 희망이 오히려 빠져린 고통이구나./아, 죽고 싶어서 정말 죽겠구나. 5. 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이 고통이/아, 얼마나 쓰라린지요./사랑이 그리도 좋다면야/지루한 기다림은 아닌 것을/강철보다 더 무거운 이 짐을/하느님! 제발 벗겨 주소서/아, 정녕 죽고 싶어서 죽겠나이다. 6. 언젠가는 죽게 되리라는/믿음 하나로 살아간다네./죽으면서 사는 길이/나의

소원을 더 굳게 다지는데/죽음이여! 너에게서 생명을 얻나니/더디게 오지 마시라, 내 발 동동거리며 기다린다네./아, 죽고 싶어서 죽겠구나. 7. 정녕 굳센 것이 사랑이구나./목숨아, 날 좀 내버려 다오/너를 얻으려고 너를 버리는 것이니/죽음, 그것만이 너의 차지란다./어서 오게나, 감미로운 죽음이여/기분 좋은 죽음이여, 어서 오시게나!/아, 정말 죽지 못해서 죽겠구나./ 8. 거짓 없는 참된 삶은/천국에서 사는 그게 아닌가?/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살아서는 누리지 못하는 것/죽음이여, 나를 외면하지 마시게/어서 죽어서 영원히 살고 싶구나./아, 죽지 못해서 죽겠구나./ 9. 내 안에 사시는 그분께/ 나의 생명아 무엇을 드릴 수 있나/ 충실히 그분만을 섬기려 하니 / 난 너를 포기해야겠구나/ 님 아닌 다른 사랑 내겐 없으리/ 차라리 죽어서 보고 싶구나/ 아, 난 정녕 죽고 싶어서 죽겠구나.

성녀는 예닐곱 살 적 어린 시절에도, 어서 빨리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회교도인 모로인(人)들에게 잡혀 순교하러 가려고, 아홉 살 먹은 오빠를 꼬드겨서 아무도 모르게 가출하였던 이력이 있는데, 이 시에서도 성녀는 사랑하는 하느님과 함께 있는 천국을 열망하면서, 이 세상 삶이 하루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살이의 고통을 구구절절이 탄원하며 이런 시(詩)를 지어 노래하였다.*

* 선교 *

인생사 새옹지마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중국 입경을 앞두고...

양상룡(로스리오의 도미니코) 신부/ 중국선교

정말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누가 알 수 있겠는가?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이 큰 불행이고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게 또 다른 행복과 기쁨의 씨앗이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지금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앞날에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처음 중국에 파견되어서 만 2년 반을 지날 즈음 전혀 뜻하지 않게 중국에서 철수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오른쪽 발의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것이다. 중국어를 배우던 언어학교에서 외국인들을 위해 운동회를 했는데, 그게 뭐 큰 행사라기보다는 서양인들의 눈에 생소하게 보이는 고무줄놀이였다. 기다란 줄을 양쪽에서 돌리고 그 가운데에 한 명씩 뛰어 들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줄넘기를 하는 팀이 이기는 시합이었다. 그 시합 도중에 갑자기 오른쪽 발의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것이다. 그때는 누가 내 발뒤꿈치를 뒤에서 찔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뛰어들다가 아킬레스건이 파열하며 생긴 부상이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와서 수술을 받고는 일 년 반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며 회복을 해야 했었다. 원래는 일 년 만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한국에서 지속적인 중국선교를 위해 선교후원회를 조직하느라 근 2년

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 시간은 가르멜 수도회가 중국선교를 위해 든든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만일 그때 아킬레스건이 끊어지지 않고 내가 계속 중국에 남아 있었다더라면 물론 선교적 차원에서 또 다른 일들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선교에 있어서 절대적인 중국 성소자들의 양성과 선교지에서 필요한 선교활동비의 고갈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본다. 왜냐하면 당시 영성센터를 막 완공해서 재정이 바닥난 관구 차원에서 계속 선교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큰 어려움이었고 선교후원회 없이 계속 선교활동을 한다는 것은 가르멜 관구 차원에서는 큰 난관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미리 내다보시고 준비시켜주시는 하느님의 섭리는 후에 선교후원회가 조직되고 후원회원님들의 지속적인 영적, 물적 도움을 받으며 더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비록 뜻하지 않게 당한 아킬레스 부상이 선교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든든한 후원회원님과 선교후원회라는 선물로 보상을 받게 되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느님의 섭리인가? 잠시 했던 하느님에 대한 원망의 시간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리고 약 4년간의 중국에서의 선교활동이 뜻하지 않게 또다시 중단되었다. 바로 일 년을 넘어 지루하게 끌어온 코로나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간신히 구매한 중국의 집을 근 1년하고도 한 달간 방치하며

오매불망 중국에 들어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우리가 선교의 요람으로 산 집이 대도시가 아니라 중소도시에 있고 따라서 외국인이 거의 없다시피 한 이 도시에서 외국인으로서 집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간신히 집을 구매하고는 뿔 듯이 기뻐했다. 그런데 그 기쁨에 젖어 있기도 잠시, 막 이삿짐만 옮겨놓은 상태로 잠시 한국을 갔다 온다는 것이 벌써 해를 훌쩍 넘겨버렸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시간을 보내며 국경이 굳게 닫힌 중국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은 어려움이였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였다. 만일 내가 중국에 그대로 계속 남아 있었다면 내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 어쩌면 나한테 생길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분명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행히도 하느님의 섭리로 한국에 돌아와 기다리는 중에 심장의 이상을 발견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 역시 나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의 사랑이었다. 코로나로 불평만 하던 나에게겐 과분한 하느님의 섭리였다.

결국 인생사 새옹지마다.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불행이고 무엇이 행복인가? 하나하나의 작은 소소한 일들에 우리가 너무 집착할 필요도 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사모 데레사 성녀의 기도문이 떠오른다.

그 무엇에도
너 마음 설레지 말라
그 무엇도
너 무서워하지 말라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넘만이 가시지 않나니
인내함이 모두를 얻느니라

님을 모시는 이
아쉬울 무엇이 없나니
님 하나시면
흐뭇할 따름이니라

결국 중국을 떠난 지 1년하고도 한 달 보름 만에 다시 중국에 들어간다. 새로운 감회가 깊다. 그리고 흥분이 된다. 내 앞에 준비된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 하느님은 나를 통해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기보다는 그분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찾고 나를 내어놓는 삶, 바로 그것이 선교사의 삶이 아닌가 한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많은 영적, 물질 후원자님들을 가슴에 품고 하느님이 부르시는 중국 땅에 들어가고자 한다.*



* 묵상 *

하느님의 시간

윤원조(예수 마리아의 리드비나)
고성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저녁 노을이 지면
신들의 상점엔 하나 둘 불이 켜지고
농부들은 작은 당나귀들과 함께
성(城) 안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성벽은 울창한 숲으로 된 것이어서
누구나 사원을 통과하는 구름 혹은
조용한 공기들이 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들어갈 수 없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 성(城)

어느 골동품 상인이 그 숲을 찾아와
몇 개 큰 나무들을 잘라내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가 본 것은
쓰러진 나무들뿐, 잠시 후
그는 그 공터를 떠났다

농부들은 아직도
그 평화로운 성(城)에 살고 있다
물론 그 작은 당나귀들 역시

기형도 시인의 신비로운 시 '숲으로 된 성벽'이다. 그는 가난하고 어두운 현실에서 담백하고 투명한 언어를 끌어올려 시의 집을 지었다. 시인들은 현실 너머의 세계를 제시하는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시인은 초현실적 예지로 '신비로운 성'을 그리고 있다.

'한 걸음도 들어갈 수 없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구름 혹은 조용한 공기'는 지상의 어떤 것에도 가치를 두지 않고, 탐욕의 무게로 자신을 짓누르지 않는 영혼을, 그리고 농부들과 함께 성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당나귀'는 지상에서 가장 천대 받는 동물의 상징으로, 가난하고 단순한 삶을 사는 소박한 이들, 노동으로 자신의 생계를 돌보는 순박

한 육신을 말하는 듯하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그 무엇을 세속의 잣대로 들이댄 '탐욕'의 상징을 골동품 상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는 탐욕의 삽으로, 숲으로 된 그 성벽을 파헤쳤지만 그곳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 농부들과 당나귀들은 아직도 그 평화로운 성에 살고 있다.

이 시는 읽는 이에 따라서 심오한 종교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시인들이 자신의 직관으로 깨쳐 흠모하고 동경하는 이상 세계는,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여정인 하느님 나라에 가깝다.

그것은 확신 하나로 지도에 의지해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를 향해 길을 떠나는 원정대의 모습과도 겹쳐진다. 그들이 오직 황금만을 원하며, 수많은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 칼과 방패로 완전 무장을 했다면 하느님을 찾아 떠나는 영혼들의 무기는 자신을 비워서 더 작아지고 가벼워지는 데 있지 않을까?

"어린이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도 없고, 그들은 어디서나 재치 있게 빠져 나갑니다... 극히 미소한 우리들은 애써 어렵고 근사한 일을 하려 들 것 없이 '아래'로 지나갑니다."

정원 한가운데 있는 말(馬) 때문에 길을 돌아가야 하는 어른들에 비해 아이들은 작아서 말의 밑으로 통과할 수 있었다는 이 비유는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가 언니에게 들려주는 어린 시절 일화이다. (권고와 추억)

시인이 피조물이 지니는 원초적인 그리움을 예언적으로 묘사했듯이 기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노동에 시달린 당나귀인 우리 육체를 끌고 조용한 공기가 되어 신비로운 숲으로 향한다. 지상의 삶을 매일의 노동으로, 매일의 십자가로 봉헌하고 성 안으로 사라져 들어간다. 그곳은 '하느님의 시간'이다.

우리는 매일 하느님 시간 속으로 길고 긴 여행을 떠나고 동시에 여행의 끝인 숲으로 들어간다.

완전한 순수와 온전히 순수하지 못한 두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적 같은 곳, 인간의 어떠한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르쳐 주고 싶은 하느님의 언어인 곳.

고단한 나귀를 몰고 들어와 겨우 한 걸음 떴던 이곳, 하느님 당신은 마냥 신비이시기에 태초의 아침에 놓인 그 길에 맨발로 선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5)

이미 그 분은 내 곁에 와 계신다. '날이 저물어 산들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닐고 계시던 당신은' (창세기 3:8) 나를 찾으시고 내 곁에 앉아 계시고 내 눈 앞에 얼굴을 마주 대고 내가 당신을 알아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선사하신 당신은 그들과 함께 하는 매 순간에 사람에게서 배척당하시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도 진실한 당신 사랑은 우리 각자의 영혼에 열쇠 하나씩 꽂아 두시고 끝까지 기다리기로 작정하셨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기를 이렇게까지 원하시다니 어이된 일이옵니까?” (천주자비의 글 14-10)

하느님의 시간, 하느님의 땅.

아주 많은 날들을 당신의 시간 언저리에서 서성대기만 하다가, 당나귀를 따라 들어온 파리 떼가 시끄럽게 날아다닐 때면 영혼

은 긴 혀로 먹이를 낚아채 삼키는 두꺼비가 되기도 하였다가 또 어떤 순간에는, 알고 보면 성질머리가 고약하기도 하다는 이 당나귀랑 나란히 앉아 즐기도 한다.

“묵상 기도- 지금은 하느님의 시간입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하느님께서 비로소 인색한 나의 자유의지를 취하실 때, 그곳은 하느님의 방이고, 하느님의 마음이고 정원이고 품 안이고 말쑥이다. 하느님의 연못이고, 하느님의 바람이다.

하느님의 시간에 초대 되어서 하느님의 시를 느끼고, 하느님의 시가 된다.

내가 걸어 왔던 길은 지워지고 내 의지로 떼었다는 걸음걸이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이제는 온전히 하느님 것이다.

당신의 시간이 우리를 온전히 차지할 때 하느님의 침묵은 우리를 감싼다.

내 한 방울의 눈물을 당신의 바다에 합쳐서 나를 바다가 되게도 하신다.

신이신 당신을 더 먼저 걱정하신, 사람이 신을 위로하고 눈물 흘리셨던, 데레사 성녀의 '사랑'은 하느님 시간 속 영혼들의 특별한 사랑을 얘기한다.

“기도 중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영혼, 혹은 당신이 원하시는 영혼에게 당신께서 친히 가르쳐서 허다한 진리를 밝혀 주실 때 그러한 영혼은 아직 이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영혼보다 훨씬 더 다르게 사랑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도달하게 만드신 영혼은 이 사랑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완덕의 길 6-3)

다르게 사랑할 줄 알게 되는 '이 사랑', 이 지령의 원천이신 당신을 찾아, 오늘도 그들은 구름이나 조용한 공기가 되어 하느님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

* 회원의 글 *

가진 것이 많으면 베풀 것이 없다

김순상(예수의 베로니카)/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인천 맨발 가르멜 수도회는 계양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는 수도원이 4개가 있으니 풍수지리로 본다면 엄청나게 축복받은 마을이다. 가르멜 수도회, 전교 가르멜 수도회, 노틀담 수도회, 마리아니스트 수도회 이렇게 4곳이다. 내가 이 근처 마을에서 살던 비교적 먼 옛 시절, 새벽미사는 꼭 바쳤다. 가끔씩 수도원의 수방에서 혼자만의 하루 피정을 하곤 했다. 아마도 많이 목마르고 허기진 때였지 싶다. 어느 날 새벽미사 하던 중에 생각했다. '오늘은 휴가도 낸 날이니 하루 피정하고 싶다.' 미사 끝에, 신부님께 청했더니 그날따라 빈 수방이 없다신다. 그러시며 마리아니스트 수도원으로 연락을 해주셨다. 찾아오라 하셨다. 나는 기쁘게 쭈랑쭈랑 찾아갔다. 아마도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계절이었다. '수도원은 추우니 옷도 든든히, 무릎담요, 성무일도, 성경책, 돋보기, 약에 따뜻한 물에 필기도구까지. 준비물만 해도 한 보따리였다. 그 보따리를 싣고 수도원을 찾으니 늑대처럼 커다란 개가 킁킁대며 요란하고 낯설게 짖어댄다. 두어 번 짐을 수방으로 옮기다가 인기척이 없었는데, 수녀님한테 들켰다. "아니, 짐이 많으시네요..." 에고머니나, 참 부끄러웠다. 보따리가 어마무시하니... 너무도 창피했다.

가난, 정결, 순명의 생활을 하는 수녀님들은 항상 단출하지만 예쁜 원피스처럼 수도복으로, 동복과 하복 두 벌로 사시는 분들이다. 그 당시 교통사고로 겁쟁이인 나는 참 많이 다치고 괴로울 때였다. 안 그래도 감기는 내 친구요, 요추 추간판탈출

증, 역류성 식도염, 피부의 연한 쪽으로는 '콕콕 바늘로 찌시는 대상포진으로 보따리가 많을 밖에. 온 사방이 조용한데 주방 쪽에서 깔깔거리며 소곤대는 목소리는 어찌면 수녀님들의 천진스러운 하루 시간 중 으뜸일지도.

한동안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서 오후에 일찍 퇴근할 수 있었던 시절에는 노틀담 수녀원의 사랑터를 찾았다. 내가 살던 바로 근처였기에 부담이 없었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거래처가 있어서 사랑의 선교회 온정의 집과 함께 미역, 멸치, 토막 북어 등 건어물과 마음도 없어 날랐다. 그 시설은 어느 독지가 한 분이 이민을 가시면서 집, 장롱, 주방기구, 식기 등을 모두 기부하고 가신 집이었다. 아담한 2층 고급 저택으로 소나무도 멋지고 정원수도 우아한, 나도 살고 싶은 정도의 탐나는 집이었다. 식기까지 전부 다 진품, 명품(?)...

거실과 방방에 깔린 모노룸장판은 이웃 성당의 레지오 단원들이 가끔씩, 자주 오셔서 세제로 닦고 소독도 해 주신다니 참 그 원장 수녀님의 위생관념과 봉사하시는 분들의 정성에는 감격할 뿐이었다. 집에 와서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귀한 김치냉장고에 가득 찬, 제주 귤보다 한 단계 높은 수입 오렌지이며, 참외 등의 과일. 이 모든 것들은 회사품이라 하시던 말씀에 조금씩 뿐이 못하던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내 집보다 더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수녀님의 능력에 감탄할 뿐이었다. 그때 원장 수녀님은 말씀하셨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

기 계신 분들은 더 대우받으셔야 한다.” 또 말씀하셨다. 치매에 걸리더라도 당신 특유의 본성은 안 변한다는 것이었다. 멋쟁이인 할머니는 연세가 드시고 아프더라도 옷매무새며, 의복, 장신구까지도 예쁘고 고운 것으로 치장하신단다. 그리고 신심 깊은 어르신은 병중임에도 ‘주님의 기도’를 줄줄이 바치신다.

이렇게 달랑달랑 쫓아다니는 내가 맘에 드셨을까 ‘베로니카 자매의 일생 중에 요즘은 참 으뜸가는 나날일 것 같다.’고 하셨다.

그 다음에는 ‘마더 데레사회’ 시설이었다. 경인고속도로변의 인천 석남동에서 ‘사랑의 선교수녀회 온정의 집’이라 이름 했었다. 이곳의 특징은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①중환자 ②무일푼 ③무연고자의 사람들만이 입소할 수가 있었다. 알음알음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인의 설명으로 비교적 노틀담과 거의 같은 시기에 나는 발걸음을 하였다. 완전 다른 두 시설의 환경에 가슴 아프며, 한동안 봉사하다가 나의 등지를 옮기게 되며 자연스럽게 끝내게 되었다. 세월이 오래인 지금, 2014년에 인천서구 오류동 <온정의 집>으로 이전했다한다.

마더 데레사(1910.8.26~1997.9.5)는 유고슬라비아의 스코프예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카스트계급사회의 인도 캘커타에서 하느님 사랑을 전한 ‘인류의 참 어머니’로 변신하신다.

종교, 이념, 민족, 피부색을 초월한 마더 데레사는 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렸던 가난한 이들 중 가난한 이로 “주님 사랑의 기적”을 일군 일꾼이었다. 그녀에게 가난은 참 기쁨이었고 자유였으며 사랑의 힘이었고 역설적이게도 풍요로움이었다. 그 **가난의 통행증**은 온 세상을 누비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던 방편이었고

비결이었다. 한국에는 3번 다녀가셨다.

1928년 11월 인도에서 선교활동이 중심인 로레토 수녀회에 입회하고 ‘리지외의 데레사’를 수도명으로 정한다. 그 후 상류층 교에서 18년 동안 교편생활을 하였다.

1946년 9월, 피정 차 히말라야 산기슭, 열차. 그녀는 「**가난한 이들 가운데 계신 주님을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이 부르심으로 힌두이즘의 종교 전통과 카스트 제도로 전체 인구의 30%가 절대 빈곤층으로 거리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빈민들에게 사랑+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란 단순히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한 사람, 알코올 및 마약 중독자, 삶의 희망과 신앙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 성령의 힘 안에서 희망을 갖지 못한 모든 이를 칭한다.

20C의 성녀라 일컬어지는 「마더 데레사」가 1948년 4월 교황청의 뜻에 따라 창립한 **사랑의 선교 수녀회** 영성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마지막 말씀 「**목마르다**」에 근원을 두고 있다. “며칠 전 제가 천국의 문 앞에 서 있는 꿈을 꿴습니다. 그러나 성 베드로께서는 ‘지상으로 돌아가거라. 이곳에는 빈민굴이 없느니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1996년 연설)

그녀가 평상시 모든 이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은 원천은 사랑의 기적을 이룬 가난이었다. 마더 데레사는 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렸던 가난한 이들 중 가난한 이였다.

십자가의 성 요한(1542~1591)의 부친 곤잘로 예페스는 성직자, 거상을 지낸 본래 스페인의 중심지인 톨레도 상류계급의 반듯한 가문 출신이었지만 어머니는 **개종한 유대인 혈통**이었기에 당시에는 사회에서 불이익을 많이 당했던 시절이었다. 어

린 요한은 홀로 되어 가난한 가장이 되신 어머니 카타리나를 도와 자선 병원인 메디나병원에 취업한다. 말이 취업이지 엄청 가난한 병원이기 때문에 어린 요한은 거리에서 구걸을 해서 환자를 먹여 살리고 피고름을 닦는 간병을 7년간 한다.

1563년 21살에 메디나 델 캄포의 가르멜 수도회에 입회한다. 원장님의 호의로 권위 있는 살라망카대학에서 철학, 신학을 공부하고 25세 되던 1567년 사제가 된다. 사제서품을 받은 후에 운명적으로 만난 이는 바로 **아빌라의 데레사**였다. 요한은 그 당시의 가르멜보다 좀 더 엄격한 영성생활을 하고 싶어 카르투스안회로 옮기고자 한다. 이에 아빌라의 데레사는 함께 개혁해서 원래의 순수함을 회복하자며 설득한다. 우여곡절 끝에 십자가의 요한과 아빌라의 데레사 두 분은 함께 가르멜을 평정하시니 **가르멜의 사부·사모로 칭송을 받으신다.**

가르멜의 산길, 어둔 밤, 영혼의 노래, 사랑의 산 불꽃 등 주옥같은 글과 시들은 요한과 함께, 개혁을 반대하는 같은 수도회 수사들로부터 핍박과 모진 고난을 받으며 세상의 빛으로 잉태된다. 요한은 스페인 역사에서 절정이던 시기, 자신의 심오한 영성을 꽃피우고 열매를 맺으신다.

요한의 어린 시절 일화 하나. 흙탕 연못에 빠진 그를 어느 귀부인이 구하시고자 손을 내밀자 그 손을 더럽힐 것이 미안하여 못 잡고, 한 남성의 지팡이를 잡고 빠져 나온다. 이 분들은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일화 둘. 깊은 우물에 빠졌는데 우물 위에 어린 요한이 구름처럼 떠있었다. 성모님께서 우물 아래에서 요한을 받아 받치고 계셨다한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16C, 마더 데레사는 20C에 출생, 시대적으로도 다른 환경

에서 사셨기에 비교는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소외된 인간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폭은 팽팽하게 마주한다. 위의 두 분 성인께서는 삶의 결은 다르나 빈자의 안식처였고 위로가 되셨다.

마태 11.28~30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마르 12.38-44 ; 루카 21.1-4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마태 19:21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만, 우리는 주님을 모시므로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 물질, 시간, 건강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게 하시고,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게 하소서.
주님께 간절하게 비읍니다. **아멘!!!**



* 회원의 글*

천국행 승강기

반숙자(벨라뎃다)/ 충주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며칠 전 특별한 소포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봉투를 열었더니 「성심의 메시지」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가르멜 재속회 구역장님이 보낸 것입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어 단독회원인 제게 구역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사연과 함께 본인이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책이라 보낸다고 했습니다.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책을 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세파 수녀에게 직접하신 말씀입니다. 요세파 수녀는 스페인 사람으로 예수성심수녀회에 입회하여 수도 생활을 하던 중 성심의 메시지를 받아 기록하였고 1923년 12월 29일에 33세를 일기로 선종하였다고 합니다.

재속회원 이름만 붙이고 사는 저를 기억해 주고 책까지 보내주신 마음이 참으로 따뜻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월모임에서 받던 은총이 새삼 그리워져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느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가르멜회는 현세 카톨릭교회의 심장이라고요. 그것은 기도의 보고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편지를 차근차근 읽었습니다. 지난 사순 기간에 회원들이 서로 수호천사가 되어 기도를 했답니다. 어느 분이 단독회원인 저의 수호천사가 되어 기도의 수를 놓고 연두색 작은 카드에는 보물이 총총 박혔습니다. “자매님의 거룩한 여정을 위하여 주모경 30, 묵주기도 20, 미사 15, 화살기도 200번 바쳤습니다.” 얼굴도 모르

고 이름도 모르게 숨어서 바친 기도입니다.

저는 대번에 영적 승강기를 탄 듯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로지 저를 위하여 주모경을 바치고 묵주기도를 바치고 거룩한 미사에 참례하고 천국행 직행열차 화살기도를 200번이나 바쳤다니 놀랍고 감사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세상 어디에 이런 희생 어린 봉헌이 있을까요?

이만큼 건강하게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주신 수호천사들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승강기를 대절해 놓고 어서 타라고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승강기는 혼자 타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함께 타야 작동이 되는 기계라는데요.

- 수필집 『미루지 않는 사랑』에서



『미루지 않는 사랑』, 반숙자 지음, 바오로딸, 2019

* 공동체 이야기 *

어제로부터의 오늘, 그리고 내일...

충주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여보세요?”

“우리 어머님께서 선종하셨어요...”

일주일 전에 많이 편찮으시다던 자매님의 자부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조용히 가족끼리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입관식에는 저희가 참석하여 스카폴라를 입혀드리고 싶은데요.”

“아니요, 그 옷을 입혀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아니,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네, 우리 아버님께서 그 옷을 싫어하셔서요.”

“아버님께서 싫어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버님께서 가르멜을 싫어하신 이유는 어머님께서 갈색옷을 입으시면서부터 처녀 행세를 해서 갈색옷을 엄청 싫어했거든요.”

“아버님께서 생존해 계셔서 반대하시나보죠?”

“아니요,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합장시켜드리려 하는데 갈색옷을 입고 가시면 많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상주와 통화하는 것도 잊어버린 채 큰소리로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스카폴라를 입혀드리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그 자매님께 하느님 나라에서 가르멜 성모님께서 손수 입혀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30여 년 전 충주 재속가르멜 초창기 회원들은 현재와 같은 양성시스템이 없어 재속회원으로서 양성과정을 거치지 않아 서약을 하면 수녀님들과 같이 살아야 한

다는 생각에서 생겨난 에피소드이지만 나의 생활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봉헌한다는 의미가 가슴 안에 폭 묻혀 들어왔습니다.

먼 길 마다않고 오시어 강의, 미사, 면담 등으로 회원들을 매료시킨 신부님들의 노고로 공동체는 틀이 잡혀갔습니다

비록 체계적인 양성과정이 없던 시절에도 수녀님들은 기도로 길어 올린 은총의 샘물로 회원들을 더욱 탄탄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기초를 마련해주시려고 창립 초기부터 코로나 발생 전까지 넷째 주 일요일 미사는 월모임하는 재속회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회원들을 천상잔치에 초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하얀 싸리꽃잎이 흩날리는 등산에서 도시락을 나누던 일, 산에서 갓 뜬 각종 산나물로 도시에서 온 회원들의 미각을 사로잡던 일, 귀가길 버스시간 늦을세라 다투어 승용차로 픽업해주던 일 등... 공동체 한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월모임이었다고 전합니다.



창립회원들의 종신서약식(1996년)

현재 초창기 회원 분들은 귀향하시거나 단독회원을 제외하면 몇 분만 아직 우리와 함께 생활하십니다. 그분들 회고에 의하면 “충주 가르멜 수녀원 봉헌식이 있다고 해서 구경을 갔지, 그때 대전 재속회원들이 갈색 한복에 스카폴라를 입고 수녀님들을 도와주는데 정말 수녀님들인 줄 알았어. 부러워서 나도 재속회원이 되고 싶어서 여기 왔어. 응, 그땐 우리가 서약하면 수녀님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고 남에게 모범이 되어야 했었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십자가의 성 요한 충주 재속회는 30여 년 전, 충주에 가르멜 수녀원이 자리를 잡은 1년 후 대전에서 종신서약을 받으신 한 명의 재속회원이 주춧돌이 되어 1990년 3월 29일 18명이라는 숫자로 창립되었습니다.



안인호 스텔라 초대 회장
생전모습

맨발 가르멜의 창립을 위해 예수의 데레사 성녀가 계셨듯이 충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시며 주춧돌의 역할을 하신 분이 2년 전 귀향한 안인호 스텔라 초대 회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녀원 입구 정문 옆에 있던 작은 방에 거주하시면서 수녀님들 바깥일을 도와주시며 재속회를 일구어주신 스텔라 회장님, 엄마의 마음으로 가르멜의 정원의 꽃들이 시들지 않나 물주시고 뜨거워 말라버릴까 그늘을 만들어주시며 항상 다소곳한 마음으로 회원들

의 마음을 읽어 내셨습니다. 별로 말씀이 없으셨던 회장님은 기도하는 수녀님들께 혹 해가 될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월모임 중 복도에서는 발꿈치를 들고 입술엔 손가락으로 ‘쉬’ 하시며 늘 주의를 기울이시면서도 얼굴에 작은 미소가 몸에는 겸손이 배어 있었습니다. 원거리 지역에서 오는 회원들을 위해 따뜻한 밥과 국을 지어 점심을 차려주시고 혹 불편하지나 않나 하는 마음으로 회원들의 따뜻한 온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선임 회장님과 선배 회원들이 우리 공동체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셨다면, 항상 뒤에서 기도로써 묵묵히 지켜주시는 수녀님들께서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2014년까지 교육관이 없던 시절 5~6평되는 외부인을 위한 수녀원 식당에서 월모임을 할 때에 조용히 발꿈치를 들고 다니다 해도 50여명이 모인 공동체가 수녀님들 기도에 방해가 될 것임에도 묵묵히 바라봐주시고 회원들이 서약을 할 때가 되면 같이 기도해주시고 축하식에는 꼭꼭 축하 선물과 함께 제병 과자를 몇 박스씩 내 보내주셔서 우리 공동체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이 글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교육관을 지으실 때도 수녀님들 사용하실 공간을 지으시나보다 했는데 완공되는 날 비로소 우리의 교육관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공간을 안타까워하시던 마음이 소리도 없이 아늑한 기도의 공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회원들이 늘고 1998년 청주 공동체가 설립되면서 회원 25명을 떠나보낸 기쁜 아픔(?)도 있었습니다.

수녀원 외부인용 식당에서 50여 명이 움 짝달짝 못하고 앉아서 신부님 강의를 들을 때면 옆 사람 방해될까 다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허리가 아픈 회원들도 서로서로를 다독이며 강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들께서 강의를 하시면서도 우리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우신지 괜찮으

시냐고 몇 번이나 물어 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좁은 식당이 우리에게서 세상 최고의 영적 샘이었습니다. 옆 사람과 무릎을 맞대고 강의를 들으며 서로의 온기로 추위를 이기던 일, 더운 여름날 점심시간 후 바로 강의 시간이 되면 즐기고 있는 회원들의 무릎을 살짝 건드려주던 정겨운 추억도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2014년 7월 16일! 김광서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 주례로 가르멜산 성모님대축일 미사 봉헌과 함께 교육관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수녀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로 교육관을 새로 마련해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월모임과 회합을 가질 수 있도록 모두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마음은 얼마나 벅찼는지요. 새 교육관에 입주하던 때의 일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식당 바닥에 식탁과 의자를 치우고 주저앉아 교육받았던 우리는 새 교육관에 책상과 의자가 버젓이 놓여 있는 교육관을 바라보며 얼마나 감격하였는지 모릅니다. 2015년 예수의 데레사 성녀 탄생 500주년 기념미사와 폐막미사를 충주 수녀원에서 청주, 상주회원들과 함께 축하공연과 점심식사를 함께함은 가르멜 재속회원 간의 화합과 우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작년 2020년이 창립 30주년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기념행사나 모임도 제대로 가지지 못해 아쉬움이 큰 한 해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중앙에 위치한 우리 충주공동체는 넷째주일에 월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전국구' 라고 한답니다. 위로는 원주, 여주, 이천, 감곡, 우로는 제천, 단양, 좌로는 멀리 서산, 세종, 청주, 증평, 진천, 음성, 금왕 등 각지에서 가르멜의 양식을 얻고자 모여듭니다. 한때는 서울에서도 회원들이 새벽 버스를 타고 주덕 터미널에서 내려 2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출석했습니다. 그때 온 어느 신입회원은 도대체 가르멜이 무엇인데 저런 생고생을 하며 즐겁게 다니는가 하는 물음으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회원 71명중 단독 16명 피양성자 6명, 올 2월에 지원자 4명이 새로 오시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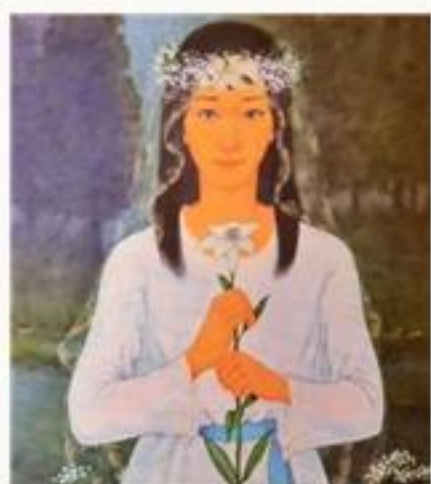
살아 있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원하는 공동체가 되어 가기 위해 우리 회기의 공동체의 목표는 '배려와 평화를 나누는 공동체'로, 주님 안에 살고자 하는 재속회원으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며 자신의 참평화를 이루는 신앙의 실천자로서 살아가는 공동체로 정했습니다.

창립 30년, 은총의 시간을 보내고 현재가 있는 것은 우리보다 앞선 선배들의 희생과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풍성하고 은혜로운 오늘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며, 또한 살아갈 내일일 것입니다.*



야외 월모임(중앙탑공원, 2017년)

* 가르멜 인간극장, 가난한 신부 *



무명배우의 특별 출연

박지현(성체성혈의 요셉피나)/ 서울 성 요셉 공동체

‘내 목덜미에 훔날리는 머리칼 하나 눈여겨보시고, 내 목덜미에 그걸 당신 보시고 그에 반하시니, 내 눈동자 하나에 당신 상처 입으셨네.’ (영적찬가)

가난한 신부의 목덜미에 훔날리는 머리칼 하나에도 신랑의 눈길 달아 반하신다 하니, 이왕이면 머리를 묶어 올려 깨끗해진 목덜미로 그분 만나 뵈면 좋으련만. 그게 그리 쉬운 건 아니더라는 말이지. 세속 사랑에 흠뻑, 신랑한테 소박맞기 딱 좋은 모양새로 살아가지만, 영적찬가의 신부, 사랑의 산 불꽃의 그 넘으로 살고파 매일이 다짐이다.

때는 1년 전, 배경은 세상 속 한가운데. 장소는 베트남 휴양지 붕따우. 등장인물은 나와 친정엄마다. 주인공의 반열에 올려놔도 손색이 없을 활약상이었다. 함께 동반했던 남편이 먼저 복귀하는 바람에 휴양지엔 모녀만 남게 됐다. 하마터면 만세를 부를 뻔~~ 하지만 엄마는 달랐다. 말도 안 통하는 낯선 곳에서 여자끼리 남아있자니 불안했던 게다. 금세 수심이 가득한 얼굴 빛이다.

방만 2인실로 바꿨다. 전망을 즐기자며 2층을 원했다. 설레는 맘으로 입실한 그곳, 전망은커녕 벽으로 막혀 있었다. 한쪽에 만들어놓은 작은 창은 조악했고, 바다가 아닌 옆 빌라의 시멘트벽이 보였다.

가르멜인에게 어둠은 축복이라지만, 그 방의 컴컴함은 나를 황망하게 했다. 그 광경을 함께 목격한 남편의 표정에선 양가감정이 교차했다.

‘데스크에 가서 방을 바꿔달라고 할까? 안 바꿔줄 텐데... 방이 답답하긴 하네.’ 그러더니 이랬다. “에이 그냥 지내 봐. 이틀만 자면 되잖아.” 엄마는 순종과 희생의 아이콘답게 훌쩍 넘어갔다. 둘만 남은 방, 사방이 막히니 답답했다. 주어진 대로 적응하는 게 순명이라지만 행복하고자 온 휴양지에서까지 자유의지를 억압해야 하는가 말이다.

“엄마, 우리 콜택시 불러서 성체조배 할 수 있는 성당 찾아가 볼까?” 엄마의 눈동자가 빛이 났다. 모녀의 갈망이 통한 것이다. 잔소리 심한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 일탈하는 자매처럼 신이 났다. 영어 몇 마디에 억수로 잘난 척 하며, 콜택시를 불렀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당은 7킬로 지점의 작은 도시, 하일남에 있었다.



길옆의 큰 성당이었고 광장이 넓었다. 오른편엔 십자가 위 예수님과 그 아래에서 묵주를 들고 서 계신 성모님을 재현한 골고타 언덕이 있었다. 광장 한 쪽엔 자비의 예수님 상이, 성전 입구엔 성 요셉 상이 서 있었다. 바람이 많이 불던 날, 성당은 조용했다. 인적이 없어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관리인을 찾아갔다.

영어를 모르는 것 같아 성호경을 긋는 시늉을 하니, 5시 40분 미사 시간을 알려줬다. 나는 손가락으로 성전을 가리킨 뒤 두 손을 모아 눈을 감았다. 지그시 말이다. 그제야 알아듣고 성전 문을 열어줬다. 엄마는 나의 진정성 있는 연기력을 지켜보면서, 사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던 불안감을 털어내고 심기일전하셨다.

어마어마하게 컸다. 제대 중앙엔 큰 십자가가 걸려있고, 그 아래 벽면엔 최후의 만찬 상이 조각돼 있었다. 맨 앞자리에 몸을 앉히니 이게 웬일? 감실이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찾아봐도 없었다. ‘다시 콜택시를 불러 감실이 있는 다른 성당에 가야 하나? 제의실엔 있지 않을까?’ 분심이 들기 시작했다. 간신히 검색해서 찾아왔건만 ‘주님, 예서도 숨어 계시다니요.’

바로 그때, 요정처럼 예쁜 소녀가 등장했다. 영어를 유창하게 했다. 관리인이 불러서 달려온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 감실 사진부터 보여줬다. 그제야 손가락으로 최후의 만찬 조각상을 가리키더니 두 손으로 네모를 그렸다. 침묵이 감돌던 그 시간, 소녀의 손동작과 그걸 바라보며 눈동자를 굴리던 모녀의 모습이 마치 판토마임 같았다.

“어디? 어디?” 하며 조각상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모녀, “어머, 세상에나.” 열두 제자 사이에 계신 예수님의 가슴에서 감실

열쇠 구멍을 발견했다. 긴박한 숨은 그림 찾기였다. 소녀의 세례명은 마리아, 성당 바로 앞집에 살고 있었다. 가이드 역할을 자청해서 동네 구경을 시켜줬다. 하일남 거리를 함께 거닐며 거저 주어진 선물에 감사했다.

다시 성전. 숨어있는 감실과 숨어계신 주님을 찾던 모녀의 바람이 이뤄진 것이다. 십자가의 성 요한께서는, ‘숨어계신 하느님을 만나 뵈려면 하느님을 찾아 숨어야 한다.’ 고 하셨다. 조배실에서 예수님과 매일 대화를 나누던 엄마께는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었을 터다.

미사 시작 10분 전, 성전의 문이 다 열렸다. 주일도 아닌데 어린이들까지 성전이 짝 찼다. 신자들의 기도 소리가 우렁찼다. 드디어 감실 문이 열렸다. 아니 예수님의 가슴이 열렸다. 제자들에게 나누신 빵과 포도주는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다. 가슴이 뺨 뚫린 채 비어있는 감실을 보니, 자신을 통째로 내어주신 예수님과 사랑의 교환이 목상되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 많고 아직도 주시는 것이 많은데, 우리가 하찮은 것을 당신께 드리기로 결심할 때, 통째로 다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꾸어주는 사람처럼 다시 받을 작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임금님은 자기를 통째로 바치지 않는 자에겐 당신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빌라의 데레사, 완덕의 길)

날이 어둑해졌다. 미사 후엔 광장 성 요셉 상 앞에서 다 같이 기도를 바쳤다. 우리네 연도 소리처럼 구성졌다. 수백 대의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기도가 끝나자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광장에 덩그러니 남은 모녀, 걱정이 시작됐다.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야 하는데, 택시도 없거니와 리조트가 외딴 곳이라 여자 둘이 움직이기엔 위

힘해 보였다.

‘이럴 땐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야.’

본당 신부님을 찾아가 안전한 콜택시를 불러 줄 수 있는지 여쭙다. 신부님이 식복사 아주머니께 뭐라고 하니까 관리인한테로 달려갔다. 잠시 기다리는 동안 신부님께 성당 후보성인을 물으니, 성 요셉 성당 이란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그 요정이 또 등장했다. 하늘에서 똑 떨어지듯이 나타난 천사였다.

식복사는 소녀의 엄마였고, 관리인은 아빠였던 거다. 낮부터 있었던 일을 꿰어보니 관리인이 통역이 안 되니까 영어 잘하는 딸을 호출한 것이다. 온 가족이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가정이었다. 관리인이 두 딸을 데리고, 우리 모녀를 리조트까지 태워다 주었다. 사랑이 겹겹이 입혀지는 것 같은 따스함. 그 가족의 모습에서 가슴을 열고 자신을 통째로 내어주신 감실 속 예수님이 겹쳐보였다.

주님을 만나 뵈려 찾아간 하일남 성 요셉 성당. 자상하게 성전 문을 열어주시고, 딸까지 불러 성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관리인 아저씨. 그분이 바로 요셉 성인이셨던 거다. 그 밤의 광장에서 아버지만 찾아가면 다 해주실 거란 믿음으로 사제관을 향해 달려가던 내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펼쳐졌다. 그곳은 내게 하느님과 요셉 성인이 함께 숨어 현존하신 아버지의 집이었다.

언뜻 보면 모녀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아니, 아니요. 그날의 주연배우는 숨어계신 주님, 우리 모녀는 조연에 불과했다. 주연과 조연 배우가 빛나도록 숨은 그림자가 되어준 무명배우는, 주님과의 만남을 중재해 준 관리인 아저씨. 요셉 성인이시

다. 숨어계신 하느님을 찾아 들어갈 때마다 그 결연 항상 숨은 성인, 요셉 아버지가 계셨던 것 같다. 무명배우의 특별출연! 성전 문을 열어준 것도 모자라, 영어 잘하는 딸을 투입시키면서까지 신랑, 신부의 중매를 서준 섬세한 연기력, 올해의 대중상 감이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올해를 성 요셉의 해로 선포하시고, 교서 「아버지의 마음」을 반포하시며, 인내하면서 희망을 키우고 노동의 가치를 재발견하며 부성(父性)을 회복하길 바라셨다. 숨은 그림자였던 무명배우 요셉을 특별 캐스팅하신 거다. 마리아와 예수를 구하고, 아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모범을 가르치신 요셉 성인은, 많은 성인을 길러내신 가르멜의 아버지시다. 우리 수도회 명칭 역시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다. 올 한해, 요셉 아버지를 더 깊이, 더 새롭게 만날 수 있겠다.

그 일이 있던 다음 날, “엄마, 짐 싸봐. 방 바꿔달라고 해보게. 밖이 보이지 않는 방이 웬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같은 돈 내고 답답한 방에서 지내야겠어?” 하며 데스크로 향했다. 생각보다 쉽게 옮겨줬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했다면 후회할 뻔했다. 전망 좋은 방, 창문을 활짝 여니 살랑 바람이 쓱 밀고 들어와 내 목덜미를 스치며, 머리칼 하나가 흩날린다. 이렇게나 좋은 것을.

“아버지. 당신은 결코 께뻘한 분이 아니시죠?”

(다음 호에 계속)

2021년 5월 구역모임

〈완덕의 길〉 영적 나눔

관구 참사회

* 범위: 제23장 해설: 일대 결심

우리는 “사랑의 종이 되기 위해” 결심을 해야 한다. 하느님은 “활기찬 영혼들의 벗” 이시다. “생명수에 닿을 때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굳게 다져진 일대 결심(一大決心)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 11, 1; 완.바 21, 2). “하느님 나라는 용기 있는 이들의 것이다.”

“세상이 꺼지건 말건 상관하지 않는 일대 결심” 이라는 슬로건은 이미 성녀가 두장 앞서 가르친 것이다(완.바 21, 2). 그것은 ‘의지의 한결같음’ 을 말한다.

1. “일대 결심” 은 무엇인가?

사실 그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예” 라는 대답처럼 간단하다. 성녀는 결단과 더불어 여정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여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성녀는 우리가 진실한 의지의 결단과 더불어 기도 여정을 시작했다는 점을 잘 알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직 인격의 심층을 관통할 수 없다는 점도 잘 알았다. 인격은 의지의 행위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예상하기 힘든 두터운 층을 갖고 있다. 또한 의지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대신 종종 “작은 결심들” 만을 하게 만든다 (완.바 16, 10).

성녀는 기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하느님께서 단호히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반해, 우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드리지 못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성녀는 「주님의 기도」의 청원문을 해설하면서 다시금 이 주제를 건드렸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32장). 이

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성부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께 우리의 뜻(의지)을 드리는 것” 과 진배없다. 이는 우리의 인격 전체를 그분께 내어 드리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종 다음과 같은 굳센 청원을 드려야 한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자신의 뜻을 접고 “일대 결심”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두 개 제시했다. 이는 기도의 여정을 시작한 이에게 결정적인 것이다.

첫 번째 목표이자 절대적인 목표는 “절대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결심이다. 그것은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심화시키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자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단호함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다(본 장의 제목; 1절).

두 번째 목표는 보다 정확한 것인데, 그것은 기도를 하기 위해 매일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을 온전히 하느님께 드리기로 결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 시간에는 “모든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여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상태에서” (2절) 하느님께 그 시간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

성녀에게 있어서 “하느님께 우리 시간을 드리는 것” 은 결코 어떤 비유가 아니다. 또한 그것은 물리적인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 부분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을 뜻한다.

2. 일대 결심을 하게 되는 세 가지 이유

성녀는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가 ‘일대 결심’ 을 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로 사랑의 이유를 들 수 있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을 말한다).

2) 두 번째로 ‘수덕적인 전략’ 이라는 이유를 들 수 있다(자기 방어).

3) 세 번째로 ‘심리적인 효과’ 라는 이유를 들 수 있다.

“일대 결심” 을 하게 되는 이유로 우리는 **무엇보다 사랑의 요청**을 들 수 있다. 상대방에게 자신을 “준다는 것” 은 상대방을 위해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일이자 자신을 양도하는 돌이킬 수 없는 행위를 의미한다. 반면, “빌려 주는 것” 은 주고받는 식의 거래를 의미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렸다 빼앗았다 하면서 하느님을 놀려야 한단 말입니까?” (2절).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통째로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에 맞게 온전히 우리 자신을 통째로 내어 드려야 한다.

두 번째 이유는 수덕적인 전투에서 **방어 전략**이라 할 수 있다(4절). 굳게 결심한 영(靈)은 상처를 덜 받는다. 그는 악마의 습격에 대해 심리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굳게 결심하는 것은 자신의 나약함을 보호해 주는 갑옷과 같다. 이로써 그는 점점 대담해 간다. 그래서 악마는 “활기찬 영혼들에 대해 큰 두려움을 갖고 있다” (4절).

세 번째 이유는 일대 결심이 영적 전투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굳은 결심한 이는 “더욱 용기를 힘껏 내어 싸운다” (5절). ‘가르멜’ 자체도 오아시스이자 전쟁터를 의미한다. 그렇다. 가르멜들이 지상에서 누린다면, 그것은 달콤한 사랑이자 **낙원**이요 **천국**일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선별된 군인들이 지키는 **성(城)**이기도 하다. 우리는 싸움에 임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 그래서 성녀는 이렇게 말했다. “머뭇거림이 없이 죽는 날까지 용감히 싸우십시오” (완.바 20, 2).

군인이 “승리만을 안중에 둔다면” (5절), 전투에 임해 겪게 될 모든 것을 받아들일 굳센 각오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지를 갈고 닦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3. 체험의 목소리

이미 『완덕의 길』을 읽은 독자라면, 여기서 데레사가 제시하는 모든 굵직한 신념들은 성녀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으로부터 이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완덕의 길』에서 ‘믿음’ 이라고 하는 요소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은 일대 결단이 요구하는 총체적인 자기 양도(自己讓渡)에 대한 일종의 **확신**이라 할 수 있다. 하느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그분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지극히 충실하시다. 이승에서 백배의 보상을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결단에 선행하시고 또 그 뒤를 따르시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래서 성녀는 하느님께서 굳센 결단을 내린 이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체험한 것을 두고 이렇게 고백했다. “이를 체험하는 것은 정말이지 엄청난 일입니다” (5-6절).

성녀는 이 소중한 앎에 대한 확신을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해 주는 가운데 자신의 체험 가운데 일부만이라도 나누고자 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입증하는 성녀의 말을 함께 들어 보기로 하자.

“여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선하심으로 체험을 통해 그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에게 증인들을 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가르멜 총서 3

“성녀 데레사와 함께하는 완덕의 길 묵상” 에서 발췌17

마음의 샘

총명하고 눈치가 빠른 작은 딸은 상냥하지만 그렇다고 타인의 친절에 쉽게 화답하지 않는다. 사리분별이 정확하여 행동에 빈틈이 없고 가식이 느껴지면 냉소적인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원칙과 당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녀에게 권위가 주어지자 그녀는 나름 옳은 판단을 행사하는 능력을 발휘하며 주변에서 인정받고 있다. 위선과 허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속 깊은 자기 얘기를 조처럼 하지 않던 그녀가 외로움을 들고 찾아왔다. 혼자라는 느낌 속에서 그녀는 바른 말을 할 때와 품어주어야 할 때를 고민하고 있다. 곁에 있던 큰 딸이 놀라는 눈으로 나를 쳐다본다. 다정다감하지만 자기주장을 쉽게 하지 못하는 언니는 동생의 외로운 감정을 낯설게 바라보고 있는 듯 했다. 사실 동생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언니도 외롭다. 두 자매는 일방적으로 남발되는 자기의 힘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자기 성장에 기여한 내적 힘과 자원을 때로는 철수하고 달콤한 성취감의 기대를 내려놓는 법을 터득한다면 좀 더 성숙해질 것이다. 익숙한 내 힘을 발휘하는 데 열중할 것인지, 아니면 그 힘을 조절하는 데 신중할 것인지 결정하기 어렵다. 큰 딸처럼 권위가 없는 자의 자기 철수는 무력하고 노예적인 순응의 위험을 갖겠지만, 작은 딸처럼 힘 있는 자의 철수는 겸손이며 사랑 어린 포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존중이 사라진 위계가 야기하는 혼란, 그러나 반대로 일어나는 위선과 가식도 함께 경계해야 한다.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딸들처럼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내 모습을 수시로 놓치고 그렇게 상실되는 순간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 정답과 오답 사이를 오고 가는 태도의 익숙함을 외로움이란 걸림돌 위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딸들을 바라보며 고개가 숙여졌다. 나 역시 기울어진 한 쪽을 바로 잡기 위해 애쓰는 행동이 오히려 다른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결과를 낳는 태도를 반복하며 그때마다 알 수 없는 공허를 느끼기 때문이다.

절대적이고 빈틈없이 완벽한 토대 위에서 바라보던 진리가 예측불가하고 어울리지 않는 빈자리가 허용되는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꽃향기로 경험될 수도 있지 않을까? 돌이켜 보면 열심히 사랑하던 시절에는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있었다. 열심히 태우는 사랑 안에서 빛나는 무력의 신비를 말할 수 있을까? 히브리인들에게 죄악으로서 게으름은 의무를 이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실천하지 않는 것이란 가르침이 떠오르는 오늘, 정답으로만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삶에서 ‘우리’를 위해 올바른 사랑을 배워가는 삶의 여정으로 들어가는 아빠와 딸들의 오늘이 좋다.

“여러분이 ‘나는 열심히 수녀처럼 보이기 싫다.’ 라고 말하여서는 안 됩니다.” (완덕 20,4)

* 독후감 *

성녀 예수의 데레사의 시와 해설을 읽고

배영숙(성령의 마리아)/ 서울 예수성심의 성녀 데레사 마르가리타 공동체

Nada te turbe

2018년 11월 건강검진으로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어디다 마음을 두어야 할지 몰랐다.

당시 영성센터에서 가르멜 영성 코스를 신청해 놓고 개강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수업을 듣지 못할 것 같다고 연락했다.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 프란치스코 신부님에게서 문자가 왔다. “환불은 불가하지만 등록 상태이기에 언제든지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문자와 “‘그 무엇에도 너 산란해 하지 마라’ 데레사 성녀의 말씀 따라 우리의 충실한 벗이신 예수님 의지하면서 잘 이겨보아요.”라는 희망찬 격려의 문자를 같이 보내 주셨다. 그래 마음 산란해하지 말고 예수님께 의지하자고 마음을 다잡았다.

암 수술을 받고 힘들었을 때, 당시 회장님과 참사님들께서 협조 신부님이신 클레멘스 신부님을 모시고 기도해 주시려 오셨다. 하찮은 나에게 회장님과 참사님들의 방문도 벅찬데 신부님까지 와 주셨으니 감격 그 자체였다. 벅찬 마음에 암 덩어리가 달아나는 것 같았다. 모두 정성을 모아 기도를 해 주시고는 다 같이 손을 잡고 ‘아무것도 너를’을 나직하게 합창을 하자고 하셨다. 너무 감사했다.

기도 덕분에 항암과 방사선 치료 없이 약물 치료만 하게 된 것 같다.

오래 전에 프란치스코 신부님께서 월모임에 오셔서 ‘Nada te turbe’ 시를 강의하신

적이 있었다. 잠시 잊고 있다가 다시 월회보에 실려 있는 것을 보니 참 반가웠다.

지금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제와 주교와 교황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매월 영명축일의 신부님과 본당 신부님들을 위하여 주모경을 바친다. 그리고 우리 회의 회원들과 단독회원들을 위하여 주모경을 바치고 카톡 카톡하고 기도 공지나 선종 공지가 뜨면 메모를 해 두었다가 같이 주모경을 바친다.

암 치료를 위해 매일 운동을 해야 하는데 목주를 들고 사제와 수도자, 암 환우들과 은인들을 위해 북한산 자락이나 우이천을 걸으면서 기도한다. 1시간~1시간 30분 정도 기도하면서 걸으면 산티아고에 가고 싶었는데... 내 마음 속에 성지를 향한 꿈을 안고 목주기도를 바친다.

산에서 청솔모도 보고 산새도 만나고 멧돼지를 보고 가슴 철렁한 적도 있었다. 하천을 따라 걸으면 탁 트인 하늘에서 매일 다른 수많은 하느님의 작품들과 북한산 전경과 때로는 이른 하얀 달까지 있으면 동양화 한 폭을 감상하는 듯하다. 하천에 청둥오리와 왜가리가 노니는 것을 보면 평화롭기도 하다.

산 중턱이나 하천 전환점에서 핸드폰으로 가르멜 묵상 말씀을 읽고 잠깐 음악을 들으며 묵상에 잠긴다. 그러면 ‘하느님이 나를 무척이나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천국을 맛보는 것 같다.

저녁이면 치료를 위해 족욕을 하는데 타이머를 맞추어 놓고 묵상기도를 한다. 이런저런 하루를 정리할 때도 있고 때로는

복음 말씀에 꽃힐 때도 있다. 30분 이상 욕욕을 하면 땀이 비 오듯이 난다. 마음속의 헛되고 그릇된 생각들이 배어나오는 듯하다. 또 치료를 위해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한다. 나물 반찬을 하자면 손이 많이 간다. 다듬고 씻고 삶고 데치고 그럴 때면 반찬을 하면서도 주님은 냄비에다 계시다며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들 건강을 위해 영적인 건강을 위해 기도를 하면서 한다. 그러면 지치지도 않는다.

암이라는 불치의 병이 왔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님이 주신

수도원 소식

가르멜 영성 특강

4월부터 매월 둘째 금요일(8월 제외), 가르멜 수도회 수사님들의 영성 특강이 명동 가톨릭 회관에서 있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오셔서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 시간: 강연 13:30 / 미사 15:30
(12시 40분부터 입실 가능)
- . 날짜: 4월 9일(금)
- . 강사: 김형신 이냐시오 신부
(가르멜 수도회 관구장)
- . 주제: 삼위일체의 성녀 엘리사벳의 영성 안에서의 기도
- . 접수 방법: 문자 사전접수010-4149-1853
(신청양식:명사특강/이름/세례명/연락처/본당)
- .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는 무료 강연입니다.
- . 코로나 19 확산 방지 참여를 위하여, 오시는 분들께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인과 타인을 위해서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 본 특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것 나쁜 것이라고 마다할 수가 있는가? 다 뜻이 있고 계획이 계시리라.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현존을 느끼며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하루가 저문다.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Solo Dios basta 하느님만으로 흡족하리라.

이 시를 한글로 친절하게 발음까지 써주셔서 감사하다.

다 외워서 품 나게 외우고 싶다.*

수도회 입회

지난 2월 15일, 2명의 형제가 새로이 수도회에 입회했습니다. 세례명은 루카, 사도요한입니다. 성소사목을 후원해주시는 모든 재속 회원분들 덕분에, 두 형제가 가르멜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재속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형제가 기쁘고 행복하게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재속회 소식

+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 * 마춘자 가르멜산 성모의 빅토리아(향년 66세)
 - . 선종일 :2021년 1월 31일
 - . 서울 성 시몬 스텍 공동체
- * 이영애 가르멜 성모의 카타리나(향년71세)
 - . 선종일: 2021년 1월 19일
 - . 서울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가르멜영성문화센터

- * **첫토요 성모 신심미사:** 매월 첫째주 (토) 10:30 미사
- * **성시간:** 3월 27일 (토) 매월 마지막 주 (토) 13:30 ~ 16:30
주례: 김광서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영성강좌, 성체조배, 미사
주제: 숨은 영성과 요셉 성인
- ※2021년 상반기 성시간

연도	날짜	지도	날짜	지도
2	3월 27일	김광서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6월 26일	황태현 디다코 신부
0	4월 24일	전주원 하상 바오로 신부	7월 31일	조성훈 다미아노 신부
2	5월 29일	박종인 라이문도 신부		
1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청년 피정:** 4월 10일 (토) 14:00 ~ 15:20
 - 미사와 성체조배 있습니다. 고요하게 하느님 안에서 쉬어 가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기다립니다.
 - 접수방법: 문자 사전접수 010-2140-7414 (청년피정 신청/이름/세례명/연락처/본당)





나, 너
당신의 피로 연결된 우리